

성경연구 제10-1호

# 신 명 기

총회성경연구소  
KOSIN BIBLE INSTITUTE

## 2023년 9월

통권 제10-1호 신명기

발행인 김하연

편집인 송영목

발행처 총회성경연구소

인쇄 2023년 9월 12일

발행 2023년 9월 12일

/

## 신명기

/

### 목 차

.

#### / 신명기 본문비평과 번역 / 4

김하연 박사(Ph.D., 총회성경연구소장, 대구삼승교회 담임)

#### /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 27

기동연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 / 신명기 해석과 강해 / 52

최윤갑 교수(고신대학교 구약학)

#### / 신명기 난제 / 78

신득일 명예교수(고신대학교 명예교수)

---

# 신명기 본문비평과 번역

김하연 박사  
Ph.D.  
총회성경연구소장  
대구삼승교회 담임

---

## 서론

신명기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요, 거대한 논문이다. 신명기는 단순한 세 개 혹은 다섯 편의 설교가 아니다.<sup>1</sup> 신명기는 단순한 두번째의 율법 (Deuteronomy),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언급된 율법을 다시한번 언급하는 그런 율법의 정리서도 아니다. 신명기는 신명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편의 독립된 율법전서이다. 신명기에는 물론 앞서 나온 출-레-민의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들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나름의 문학구조는 아주 탁월한 한편의 작품이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책이기도 했다.

---

1 일반적으로 세 개의 모세의 긴 설교는 신1:5-4:40, 신5:1-28:61 그리고 신29:1-30:20로 구별한다. 그러나 이런 설교들에는 보통 시작하는 말(모세가~시작하였더라)과 마무리하는 말들이(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신32:45) 있어야 하나 위의 세 개의 긴 설교의 끝부분에는 마무리하는 말들이 없다.

단적인 증거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 총 202개 중에서 시편 36개를 이어서 신명기 사본은 35개으로써 오경의 다른 책의 사본들 (창세기 23-24개, 출애굽기 21개, 레위기 15개, 민수기 9개)에 비해서나 오경 외의 책들의 사본들(평균 1-8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sup>2</sup> 신명기는 신약성경에서도 무려 80여회나 인용이 된 책이다.<sup>3</sup>

신명기의 이름은 영어로는 Deuteronomy, 즉 두 번째의 율법-Deutero+nomos라고 할 수 있다. 중복된 율법, 이것은 칠십인역과 라틴어의 영향으로 기록된 이름이다. 두번째 율법의 의미 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히브리어로는 두 이름 즉 신명기 1장 1절의 드바림 (דְּבָרִים-‘말씀들’)이라고 하고, 또 신명기 17장 19절을 따라서 ‘미쉬네 하토라’ (מִשְׁנֵה תּוֹרָה - Torah Secondary)’라고 할 수 있다. ‘미쉬네 하토라’라는 말은,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마치 탈무드의 미쉬나가 성경에 나온 율법을 주제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것과 같다. 탈무드는 성경 전체의 율법의 가르침을 크게는 여섯파트로 나누고<sup>4</sup> 그것을 다시 세분해서 전체를 63개의 세부 주제들(히, 마세켓 혹은 영, Tractate)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토라에 근거한 말씀의 상세한 주제별 연구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신명기 전체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명기 전체가 내용면에서는 율법서 그 자체인 동시에 율법서를 열개, 곧 십계명의 주제를 따라서 재배치하고 정돈해

2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Revised and Expanded 4<sup>th</sup>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2, p. 116

3 신 1:31-행 13:18, 신 8:3-눅 4:4, 신 32:35-롬 12:19 등.

4 탈무드의 여섯 파트: 씨앗-농경법과 땅 경작에 있어서의 종교적 의무; 절기-안식일을 비롯한 종교적 절기들을 다룬다; 여자-혼인, 이혼, 간통, 서원문제 등을 다룬다; 손해-민사 및 형사 문제를 다룬다; 성물-희생 및 동물 문제를 다룬다; 정결-사람이나 물건의 깨끗한 여부를 다룬다.

5 개정개역 한글 성경에 신17:18에 ‘토라 미쉬네’를 ‘등사본’으로 번역한 것은 무척이나 아쉽다. 그런 뜻하고는 거리가 멀다.

놓은 율법 전서이다.<sup>6</sup>

신명기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사실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사실 다만, 열개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탈무드의 거대한 여섯개의 주제들 같이 십계명은 열개의 거대한 주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과 형식의 면에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19-23장의 ‘ 시내산 언약’과 유사하다. 내용의 측면에서 오경의 이 두 부분은 오로지하고 십계명과 그의 확대된 해석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면에서 출20장에서 십계명이 알려진 후에, 출애굽기 21-23장에서의 소위 ‘언약책’에 기록된 율법은 이 십계명을 항목별로 정리해 나간 것이요, 신명기도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이다. 신명기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였다”를 위시하여 여러 번 성경에 모세의 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신 31:9, 수 1:7, 사 3:4, 왕상 2:3, 느 3:2, 마 19:7, 막 7:10, 행 3:22, 롬 10:19 등) 불구하고 신명기의 모세 저작권은 끊임없이 도전 받아왔다. 신명기의 모세저작권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P.C. Craigie, R.K. Harrison, K.A. Kitchen, M. Kline, G.T. Manley, S.J. Schultz, J.A. Thompson, G. Archer, 등 보수적인 학자들과 J.H. Hertz, M.H. Segal, M. Margolis 등의 유대인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J. Wellhausen 이 그의 책 『이스라엘 역사의 서설』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1885)에 언급한 것을 필두로 해서 G. von Rad, W.M.L. De Wette, M. Weinfeld등 여러 진보신학자들은 모세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Weinfeld도 신명기는

---

6 십계명의 해설로써의 신명기에 관한 주장은 S.A. Kam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al Law” (Maarav 1978-79, pp. 105-158)와 J.H. Walton,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Gace Theological Journal, 8, 1987, pp. 213-225)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월튼은 제1계명(5:7, 6-11장), 제2계명 (19:1-24:7), 3계명 (5:11, 13:1-14:21), 제5계명(5:16, 16:18-17:13), 제6-8계명(5:8-10, 17-19, 12:1-32, 6계명-19:1-23, 7계명 22:1-23:14, 8계명 23:15-24:7), 제9계명(5:20, 24:8-16), 제10계명(5:21, 24:17-26:15)로 연결시킨다.



기원전 7세기에 편집되었으며 심지어 신명기1-4장은 신명기(Deuteronomy, or Deuteronomic)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영향을 받은 ‘신명기주의적(Deuteronomistic)’인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한다.<sup>7</sup> 소위 모세 저작권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바로 Wellhausen에 의해 체계화된 ‘문서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의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는 문서가설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본문 비평과 번역

### 신명기 1:1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בְּעֵבֶר הַיַּרְדֵּן(베에베르 하야르덴)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어디인가? 요단강 동편인가 서편인가?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전한 장소는 ‘요단 저편(베에베르 하야르덴) 습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단 저편’은 ‘요단 동편’(Trans Jordan)을 가리킨다. 개역개정판은 일정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압쪽의 땅을 1:1, 5은 ‘요단 저편’으로, 그리고 3:8 이하에서부터는 ‘요단강 이편’으로 묘사하여서 통일성이 없다.

‘습’은 홍해를 가르친다. 히브리어로 홍해는 ‘얌 습’이라고 한다. 홍해의 건너편은 홍해의 북쪽을 의미하고, 아라바 광야는 홍해에서 갈릴리까지의

---

7 모세 바인펠트는 그의 책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School (1972)에서 신명기가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 요시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실과 관계를 맺어온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본다. 주전 7세기 앗수르 국가 조약, 앗수르왕 에살하돈 (680-669 BC)가 주변의 봉신들과 맺은 언약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

긴 요단계곡을 의미한다. 신1:5에는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을 준 위치가 ‘모압평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의 위치가 1:1에 언급한 홍해 북쪽, 아라바 동쪽의 위치임을 보여준다. 본절에서의 요단 건너편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요단 서편을 의미할 때도 있다(3:20, 25, 11:30). 전체 지리적 위치로 보면 요단강 동편이 ‘요단 건너편’이 되지만, 모세가 서 있는 모압땅에서 ‘에베르 하야르덴(요단 건너편)’을 지목하는 위의 세 구절 경우는 요단강 서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는 모세의 기록자적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모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못한다.<sup>8</sup> ‘에베르 하 야르덴’을 ‘요단 이편, 혹은 요단 저편’으로 번역할때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직역하여 ‘요단 건너편’으로 번역하면 문맥에 따른 적절한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 대부분의 영어번역과 (KJV, NASB, NIV, RSV 등) 한글 번역은 언약의 앞 선 체결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많은 혼동을 준다. 개역개정版的 번역을 따라 갔는데,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우리 조상’이 누구이냐는 것이다. 몇 가지 해석이 도출되는 바, 곧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 야곱 등이라는 해석과 광야 생활 초창기의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이라는 설이 또한 그러하다. 처음의 견해를 따르면 조상들의 시대에는 이 십계명 등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분명히 계명이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조상들은 마치 언약에서 열외가

8 그리스 L. 아처, 김정우, 김은호 역, 『구약총론』, 서울: CLC, 2002, pp. 363-364.



되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신명기 4장 31절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언급하시므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분명히 언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지 아니한가? 두 번째 견해를 따르면 시내산 계약 체결자, 즉 처음으로 십계명을 들었던 세대는 계명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이제 신명기 시대에는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 광야에서 새로이 출발한 세대가 ‘오늘 우리’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인물들임을 볼 때, 이 둘째 해석도 설득력이 없다.

이 본문의 번역과 해석의 난점은 히브리어 구문 ‘로~키 (לֹכִי)’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기인한다. ‘로~키’의 구문은 대개는 ‘not A ~ but B’(A가 아니라 B) 정도로 번역을 하나, 이 구문은 영어의 ‘not only A ~ but also B’(A 뿐 아니라 B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sup>9</sup> 그렇다면, 이 언약은 ‘우리 조상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전 세대에 걸쳐서 지켜져야 할 계명이 되는 것이다. 모세는 이 언약의 측면에서 이 언약을 지키고 나가야 할 이들은 바로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누가 아닌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모세의 시대에 그 구원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신명기 4장31절은 이 언약과-성취의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 체결자인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도 영속됨을 보여준다. 모세는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9 A. Mirski, Debarim(Deuteronomy, in Hebrew), Jerusalem: Mossad Harav Kook, 2001, p. 86.

지난 39년 전에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명 주심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פָּנֶיךָ אֶפְנֵי פָנַי בֵּה פָנַי)”(4절)을 대하였다고 한다. 어의적으로 이 표현은 일반적인 ‘얼굴을 향하여 (פָּנֶיךָ אֶפְנֵי פָנַי אֶל פָּנַי)’ 보다도 더 직접적이다. 그러나 모세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이 표현은 단순히 좀더 가까이서 마주 본다는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존전에 섰던 신전의식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산의 가운데서 뜨겁고 놀라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이다. 그 때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죽음을 당하지 않은 영광의 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출24:10-11, 신5:24-26).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의 법을 지키고 종의 법을 지켰으나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애굽의 법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 한사람 한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생생함을 생각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해서 책임 있게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체나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켜 나가야 한다.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것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언약을 지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가야 할 과제이다.

## 신명기 5장 11절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0계명 중에서 가장 해석이 모호하게 여겨졌던 계명은 바로 이 3계명이다. 더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에 섞어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폭이 좁게 생각하기도 한다. 더러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한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지 못하고, ‘거룩하신 이름(שֵׁם הַקָּדוֹשׁ)’, ‘축복받으실 바로 그분(כָּדֹשׁ בָּרוּךְ)’, ‘살아계신 이름(שֵׁם הַחַיִּים)’, 가장 흔하게 ‘아도나이(주)’ 등 여러 다른 표현법으로 대치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으로 알리기를 원하셨다 (출6:2-3).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려면, 그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 3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개역개정版的 번역은 상당히 오해를 사거나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번역이다. 3계명의 앞부분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in vain, falsely) 부르지 말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거짓되게”를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솜브(לֹא־בֶרֶךְ)’는 제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거짓’이란 말을 위해서 한번 더 쓰였다. 출 애굽기 20장 16절에는 제9계명에서 라솜브 대신 ‘쉐케르(שָׁקֵר)’로 쓰였는데 이 역시 ‘거짓’이란 뜻이다. 이로 볼 때에도 신명기 5장의 제 3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로 이해함이 옳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한다.

제3계명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심각했다. 다윗도 밋세바와 간음한 뒤 처음엔

위장하다가, 결국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하고 나아오지 않았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하는데,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정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피 묻은 손으로,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나, 형제와 불화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약의 시대에 거짓된 제물을 드리던 이들에 대해 성경은 엄하게 경고한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상한 제물과 온전치 않은 십일조와 거짓된 헌물을 드렸던 것이다(사 1:11-17, 말 1:6-10).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다. 신약성경 시대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 선생들 등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높이기를 애쓴 것 같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않았다. 1-3세기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회당, 성전의 바닥의 모자이크에 어떤 모양의 짐승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것은 놀랍지 않은가? 1, 2계명을 잘 지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역겹게 했던 것은 바로 이 3계명이 어겨진 것 가운데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다. 위선과 거짓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율법준수 보다도 그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곧 바리새인들의 거짓 기도, 교만과 자랑과 탐욕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세,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었다. 주기도문에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의 이름이 구별되어 높아져야 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특히 그러해야 하는데,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가운데 그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망령된’으로 잘못 번역된 ‘라샤브(לִשְׁבֹּר)’라는 말은 ‘헛된 것/거짓된 것을 위하여’ 라는 뜻일 진데, 거짓된 예배는 헛될 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해야 한다.

## 신명기 6장 4절 / 마소라 본문의 특이한 쓰기 습관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MT>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들으라 이스라엘아” 등의 말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다. 신명기에만 다섯 번 (신 4:1, 5:1, 6:4, 9:1, 20:3) 나오고 구약의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4:1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한다. 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신9:1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더 강한 나라를 이길 것이라는 것이다.

본문에 “들으라(שְׁמַע 쉬마, 명령형)”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 한 가지는 ‘귀로 주의해서 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한다’는 뜻이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더러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은즉” 할 때 ‘듣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아내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자체의 문맥에서도 이 말의 용례는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지킨다’는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은 “듣고, 준행하라”고 하고 신명기 5장 1절에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읽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곧 ‘준행하라, 지키라’라는 표현들과 병행구절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듣는 것이 곧 순종하고 지킨다는 의미인 것이다.

쉐마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하고 축복하신다. 쉼마(들으라)는 들으라는 말이고, 4-5절에 나타난 바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을 작은 두루마리에 단어간 여백도 없이 작게 기록해서 원통으로 말고 또 작은 통에 넣어서, 집의 모든 문기둥에 붙여놓고 있다(메주자). 한집에도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 방의 개수에 따라서 이 메주자의 숫자가 다르다. 그 내용은 같다. 이 속에 들어 있는 이 말씀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에 들어가며 나가며 여기에 손을 얹고 키스하고 들어가고 나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 신명기 6장 5절

<개역개정>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MT>

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신명기 6장 4절로 시작된 ‘쉐마’ 문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니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이니라”로 시작된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분만이 하나님이니란 말씀이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  
모든 다른 것은 만들어진 것뿐이다. 그러므로 ‘하나이다’하는 말은 단순히 ‘  
유일신’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천상 천하에 유일하시고 홀로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분명한 창조주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글 성경번역에는  
접속사 ‘웨(그러므로)’를 빼놓고 번역을 하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서로 인과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이다. 성경의 대답은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5절은 그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다.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בְּכָל־לֵבְבְּךָ (베콜-레바베카)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영어로  
단순히 ‘마음’을 의미하는 ‘mind’보다는 문자대로의 번역인 ‘heart’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다. 즉 심장을 말한다. 즉 네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이다. 한국어로는  
아마도 그래도 ‘마음’이 가장 나을 것이나 그 의미는 ‘그의 생각, 느낌, 의도,

그리고 열망을 다하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소중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וּבְכָל-נַפְשִׁי(우베콜-납쉐카) 개역개정- 뜻을 다하여, 바른 성경은 '목숨을 다하여'

개역개정은 분명한 오역이다. 히브리어 원문 נַפְשִׁי(네페쉬)는 'soul, living being, life'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위의 구절 וּבְכָל-נַפְשִׁי וּבְכָל-לֵבָבִי.(베콜-레바벤키 우베콜-납쉐카)과 함께 관용적인 의미로 '모든 열정과 모든 생명을 다해'의 의미로 쓰인다. 사무엘상 2장35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וּבְכָבְדִּי וּבְנַפְשִׁי(빌바비 우베납쉬, in My heart and in My soul /NASB)

역시 '나의 열정과 생명을 따라' 행할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וּבְכָל-חַיְתִּי(우베콜-메오데카) 힘을 다하여 - 나의 모든 능력과 방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네게 있는 모든 소유와 능력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삼박자의 하나님 사랑은 말 그대로 온 생명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참고 마 22:37).

이제 5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다.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모든 생명과 그리고 네 모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sup>10</sup>

## 신명기 27장 10절

<개역개정>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 김하연, 총회성경연구소, 『다시보는 72구절』, 서울: SFC, 2019, pp. 74-78.

<MT>

אַת־מִצְוֹתָו וְאַת־חֻקֶּי (에트 미쯔보토 웨 엣 후카브) 그의 명령과 규례들을

<LXX>

πάσας τὰς ἐντολὰς αὐτοῦ καὶ τὰ δικαιώματα αὐτοῦ (그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을)

한국어로 ‘명령과 규례’라는 말이 집합적인 의미로 쓰일 수는 있어서 본문 이해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여기에 실수가 일어난다. ‘그의 명령’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은 본문을 커리(Qere)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여서 읽기를 고친다(מִצְוֹתַי, 미쯔보타브). 커레시스템은 전수된 기록된 본문을 고치지는 못하되 명백한 오류는 바로잡아서 읽고 이해하라는 의미의 기법이다.

## 신명기 31장 1절

<개역개정>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MT>

וַיֵּלֶךְ מֹשֶׁה וַיְדַבֵּר אֶת־הַדְּבָרִים הָאֵלֶּה אֶל־כָּל־יִשְׂרָאֵל

<바른성경>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였다.

ESV So Moses continued to speak these words to all Israel.

JPS And Moses went and spoke these words unto all Israel.

TNK Moses went and spoke these things to all Israel.

RSV So Moses continued to speak these words to all Israel.

NASB So Moses wen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NIV Then Moses went ou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NRS When Moses had finished speaking all these words to all Israel,

<원문 새번역>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끝냈다.<sup>11</sup>

여러 다양한 번역만큼이나 본문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은 주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더러는 본문의 문제의식은 가졌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로 해석하기도 한다(Keil & Delitzsch). 또는 ‘그리고 모세가 가서’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여정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보기도 한다(D.L. Christensen, WBC). 마소라 본문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화시켜보려는 시도들이다. 한편, 위의 언급된 ESV 영어번역은 ‘continued’로 번역했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좀 무리하게 ‘연결사’ 정도로 생각한 것 같이 보인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본문의 문제는 대개의 번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명기 31:1의 말씀이 두가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1) 대부분 한글번역이나 영어번역처럼, ‘모세가 가서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이 번역에 따르면 모세는 신명기 29장 2절에서 긴 연설을 시작하고 드디어 30:20에서 연설을 끝냈는데, 모세가 이 연설을 이제 이스라엘의 각지파별로(?) 가서 다시 그 연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될 것이다.

2) 다른 견해는 모세가 위의 긴 연설을 신명기 30장 20절에서 마무리했고, 이제 31장 1절에 모세가 이 모든 연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설하기를 마쳤다고 확인하는 연설을 닫는 문장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2)의 번역과 이해가 훨씬 타당하다. 그 이유를

---

11 참조, 김하연, 총회성경연구소, 『다시보는 72구절』, 서울: SFC, 2019, pp. 80-83.

살펴보자. 먼저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위 1)의 견해를 쫓으려 하면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신명기 29장 2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소집’했기 때문이다.<sup>12</sup> 소집해서 전한 말씀을 이제 가서 다시 전한다는 것은 문맥상 혼돈을 가져온다. 그러나 2)의 번역과 이해를 볼 때에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 모세의 연설은 끝날 때에 어떤 공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1절~44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 노래를 마칠 때에 마무리 어투를(closing word) 45절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신 32:45) 하는 표현은 연설을 마칠 때의 상투적인 닫는 문구(closing word)이다.

## 신명기 32:45

<MT>

וְכָל מֹשֶׁה לְדַבֵּר אֶת־כָּל־הַדְּבָרִים הָאֵלֶּה אֶל־כָּל־יִשְׂרָאֵל:

이 닫는 문구가 신명기 29장 1절-30장 20절의 모세의 연설을 닫으면서 신명기 31장 1절에 정확하게 반복되어 사용된 것이다. 연설의 형식을 잘 지킨 매끈한 문맥적 일치가 된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1절은 어떤 새로운 연설을 위해서 모세가 새롭게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2절 이하의 연설을 마무리하는 말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혼 동이 오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마소라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소라본문, 칠십인역, 그리고 쿰란사본의 내용을 보자.

12 신 29: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마소라본문(MT) וָלַךְ ‘봐엘렉’ 그리고 그가 가서

칠십인역 (LXX) καὶ συνετέλεσεν ‘카이 켄에텔레센’(=וָלַךְ) 그리고 그가 끝냈다

쿰란사본 (1Q5) וָלַךְ ‘봐예칼’ 그리고 그가 끝냈다.(1QDeut<sup>a</sup> frg. 12 ii, line 4)<sup>13</sup>

마소라 본문은 ‘봐엘렉’ (그리고 그가 가서)로 읽고 있고 칠십인역과 쿰란사본은 ‘봐예칼’(그리고 그가 끝냈다)로 읽고 있다. 마소라 본문의 וָלַךְ (그리고 그가 갔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칠십인역과 쿰란 사본의 וָלַךְ과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위치한 두 글자의 위치 변경(metathesis)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히브리어의 ו와 ל의 위치가 바뀐 것이다.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서기관의 필사시에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문은 칠십인역과 쿰란을 따라서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라고 번역함이 옳다. 마소라 본문의 실수로 생긴 일이다.<sup>14</sup>

아울러 본문의 장절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성경의 장절의 구분은 13세기 랑톤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의 가지고 있던 헬라어 사본을 중심으로 성경 각책의 장절을 구분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도 장절을 맞춘 것이다.<sup>15</sup> 그런데 때로 그는 이 장절 분리함에 있어서 실수도 했다. 그 이전에는 장 절의 구별이 없었다.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들도 일절의 장절에 대한 표기나 숫자는 없다. 다만 큰 단락의 구별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31장 1절은 신명기 30장 21절로 배정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

13 E.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revised and Enlarged Second Edition, Jerusalem: Simor Ltd., 1997, p. 62

1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참고하라. Jobes, Karen H. and Moisé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5, pp. 114-117.

15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pp. 22-23, 특히 f.n. 2를 보라.



## 신명기 32장 35절 : 약어표기?

<개역개정>

(       없음       ),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바른성경>

복수와 보응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들의 발이 실족할 때가 있다.  
재난의 날이 가까우며, 그들에게 당할 일들이 빠를 것이다.

<ESV>

Vengeance is mine, and recompense, for the time when their foot shall slip; For the day of their calamity is at hand, and their doom comes swiftly.

<MT>

לֹא יִקָּם וְיִשְׁלַם לְעַתָּה תַּמּוּט רַגְלָם כִּי קָרוֹב יוֹם אִידָם וְהָיָה עֲתִידָתָם לְמָוֶה

<LXX>

ἐν ἡμέρᾳ ἐκδικήσεως ἀνταποδώσω ἐν καιρῷ ὅταν σφαλῇ ὁ πούς αὐτῶν ὅτι  
ἐγγὺς ἡμέρα ἀπωλείας αὐτῶν καὶ πάρεστιν ἔτοιμα ὕμῃν

영어번역들과 바른성경은 ‘복수와 보응은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다(ESV: Vengeance is mine, and recompense). 이 번역은 MT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이니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완전히 빠졌다. 이것은 번역의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칠십인역이다. 칠십인역(LXX)는 ἐν ἡμέρᾳ ἐκδικήσεως ἀνταποδώσω라고 번역함으로 ‘나에게 속한 (히, לִּי)’의 부분을 ‘그날에 (히, יוֹם)’를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요드 (י)’를 ‘욤(יֵ)’의 약자로 여긴 번역이기에 연구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칠십인역 번역자의 실수로만 보기는 힘들다.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은 **אִי**으로 읽음으로 칠십인역을 지지한다.

칠십인역에는 이러한 약어로의 읽기가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요나서 1장 9 절의 **אֲנֹכִי עֲבָדִי** (이브리 아노키, 나는 히브리인이요)의 부분을 칠십인역은 *δοῦλος κυρίου ἐγὼ εἰμι* (돌로스 큐리우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주의 종이요’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עֲבָדִי**(이브리)의 세번째 글자인 **ד** (레이쉬)를 비슷한 모양의 **ד** (달렛)으로 혼동하여 **עבדי**(아바디, 나의 종) 으로 읽은 일과, 네번째 글자인 **י**(요드)를 신성네문자(**יהוה**)의 약자로 취급하는 결과로 생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 신명기 34장 6절

<개역개정>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MT>

וַיִּקְבֹּר אֹתוֹ בְּגִי בְּאֶרֶץ מוֹאָב מִלִּבַּיִת פְּעוֹר וְלֹא יָדָע אִישׁ אֶת־קְבֻרָתוֹ עַד הַיּוֹם הַזֶּה׃

<LXX>

καὶ ἔθαψαν αὐτὸν ἐν Γαι ἐν γῇ Μωαβ ἐγγὺς οἴκου Φογωρ καὶ οὐκ οἶδεν οὐδεὶς τὴν ταφὴν αὐτοῦ ἕως τῆς ἡμέρας ταύτης

<ESV>

and he buried him in the valley in the land of Moab opposite Beth-

16 해당본문은 MT가 문맥의 질문에 더 잘 부합하는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 온1:8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히브리인이요'라는 것이 더 적절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은 번역자의 신학적인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여기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있다. 참조하라. E.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pp. 147-148.

peor; but no one knows the place of his burial to this day.

본 절은 한국어 번역이나 다른 영어번역 등에서 잘못번역 된 것은 아니다. 특히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는 부분은 잘 번역되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에서는 ‘골짜기’가 아니라 ‘가이’라는 지명(고유명사)으로 되었으므로 적어도 언급할 필요는 있다. 몇몇 히브리어 사본들과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 그리고 아람어 타르굼 등은 모두 **בְּגֵיאַ**(바가이, 골짜기)라고 읽고 있고, 또 이것은 성경의 같은 병행 본문인 신3:29과 4:46에도 이와 같이 읽고 있기 때문이다.

신 3:29 **וְנָשַׁב בְּגֵיאַ מֹל בֵּית פְּעוֹר** 우리가 벤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다.

신 4:46 **בְּעֵבֶר הַיַּרְדֵּן בְּגֵיאַ מֹל בֵּית פְּעוֹר** 요단강 건너편 벤브올의 맞은편 골짜기에

‘벤브올 맞은편 골짜기’는 특별한 골짜기 이름이 없더라도 익숙해진 지명이다. 그러므로 기록된 마소라본문(ketib)에서 **בְּגֵיאַ**(바가이, 골짜기)를 **בְּגַי**(바기)로 기록한 것은 서기관들의 오기로 인한 것으로 한글자 ‘알렙’이 빠진것이다. 칠십인역이 ‘가이(ἐν Γαι)’로 읽은 것은 마소라 본문의 실수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것이다. 다른 사본들과 병행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본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바르게 번역할 수 있었다.

### <참고자료 : 신명기 콜로폰>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의 콜로폰(colophone, 부기)을 소개하면 성경전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마소라 본문의 각 책에는 콜로폰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은 아니다. 성경 본문을 필사하는 서기관의 작업의 방법(practice)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아래의 복사 사진은 모세오경의 제11장의 책인 신명기 34장 본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표기이다. 특히 신명기의 콜로폰은 신명기에 관한 기록을 한 후에 모세오경 전체에 관한 콜로폰을 같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사진본에 나온 것은 총 12줄(lines)인데 위의 내용은

이 내용들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확하게 필사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성경본문을 기록하고 난 뒤에 전체 절수, 단어수, 글자수까지 세었던 것이다. 성경을 필사할 때 서기관들은 보통 3인 일조가 되어서 번역한다. 자음 본문을 필사하는 사람, 모음부호와 액센트를 삽입하는 사람, 그리고 절, 단어, 글자 수를 세는 사람이 있었다. 각각의 역할을 논의없이 감독하는 가운데 그들은 정확하게 본문을 전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 정리하면서

위에 제시된 자료들은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역인 칠십인역을 주로 비교하면서 한글번역이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가를 살피고, 또한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수들마저 살펴보았다.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본문은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필사된 사본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비평의 과정들을 통해서 엄격하게 살펴보고 본문 선택의 과정을 감당함으로 비로서 더 정확한 번역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위의 사용된 자료들은 신명기 전체에 비교해 볼 때에 지극히 일부의 본문에 지나지 않는다. 매절마다 정말 방대한 연구작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

#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기동연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

신명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한 시내산 언약 규정의 설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비평학의 대두와 함께 신명기의 모세 저작성이 도전 받게 되었고, 많은 비평학자들이 신명기의 저작 시기를 요시아의 성전 정화와 개혁 때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야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정상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 1. 신명기의 저자와 저작 시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하고 있다.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모세를 모세 오경의 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막 12:26; 눅 24:27; 요 7:19; 행 13:39; 15:5; 28:23; 고후 3:15; 히 9:19).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모세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곳곳에 가지고 있다. 신명기 24:1-4에 있는 이혼 증서 규정에 대해 마태복음 19:7-8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 규정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린도전서 9:9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양식 공급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5:4의 인용이기 때문에 바울도 신명기의 모세 저작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이라고 한 말에서 두세 증인은 신명기 19:15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에서 증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23:1; 레위기 5:1 민수기 5:13; 35:30; 신명기 17:7에도 있지만 이 본문들은 증인의 숫자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두 명 또는 세 명의 증인을 언급하는 본문은 신명기 19:15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신명기 19:15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면,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신명기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도들의 글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명기의 저자를 모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비평학이 등장하면서 신명기의 모세 저장성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모세 저작성을 처음으로 부인한 사람은 W. M. L. de Wette이다.

독일 신학자인 Wilhelm Martin Leberecht de Wette는 1805년에 통과된 그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 시대에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주장했다.<sup>1</sup> 그에 의하면 신명기에는 유별나게 선호되는 표현들과 단어들 그리고 수사학적 표현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특정한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명기가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명기 12:5을 기원전 7세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거주지이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소에 성막을 세워 그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곳이 실로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할 것 없고,

---

1 W.M.L. de Wette, *Dissertatio critica qua Deuteronomium a prioribus Pentateuchi libris diversum alius cuiusdam recentioris opus esse monstratur* (Jena, 1805).

그리고 그 기간에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막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로 생각했다. 하지만 de Wette는 이 본문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고안된 표현으로 생각했다.<sup>2</sup> 그에 의하면 이런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의 전통을 통해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강화하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De Wette는 또한 열왕기하 22:8-11에 기록된 요시아 왕의 성전 보수 공사 중에 힐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책을 신명기서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의 설교와 신명기의 메시지 내용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de Wette의 주장을 모세 오경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의 문을 여는 신기원적 작품이라고 칭찬하면서 신명기는 J문서와 E문서 다음에 만들어진 신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종교 서적이라고 했다.<sup>4</sup> De Wette의 주장은 대부분의 비평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마틴 노스(Martin Noth)를 비롯한 많은 전승사 비평학자들이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의 저자가 편집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sup>5</sup> 특히 Moshe Weinfeld는 de Wett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표현 목록을 만들고 신명기를 아홉 개의 주요 신학적 관심사들로 묶었다.<sup>6</sup>

- 2 Jeffrey Niehaus, "The Central Sanctuary: Where and When," Tyntale Bulletin 43.1 (1992): 3-29; Bill T. Arnold, "Deuteronomy 12 and the Law of the Central Sanctuary noch einmal," Vetus Testamentum 64 (2014): 36-248.
- 3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32-37.
- 4 Julius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 translated by Men zies and Black (1883 Reprint; New York: Meridian Books, 1957), 4-5; J. A. Thompson, Deuteronomy (Downers Grove: IVP, 1974), 48.
- 5 Martin Noth, ii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Halle, M. Niemeyer 1943, 19572) ET. D.R. Ap-Thomas et al.,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1981). I. Engnell, Gamla Testamentet en traditionshistorisk inledning I (Stockholm, Svenska Kyrkans Diakonistyrelses Bokforlag 1945); G.E. Wright, "The Book of Deuteronomy," in IB 2 (New York, Abingdon-Cokesbury 1953); E.W. Nicholson, Deuteronomy and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1967).
- 6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320-365.

- 1) 우상 숭배에 대한 싸움, 2) 제의의 중앙 집중화, 3) 출애굽, 언약, 그리고 선택
- 4) 단일신적 신조, 5) 율법 준수와 언약에 충실, 6) 땅의 상속
- 7) 징벌과 물질적 동기부여, 8) 예언의 성취, 9) 다윗 왕조의 선택

Weinfeld는 신명기의 신학을 오경 중에서 가장 고상한 단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더 발전된 인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Weinfeld는 신명기의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신명기적 문학을 셋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셋은 신명기서, 여호수아-열왕기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설교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Weinfeld는 Martin Noth의 가설에 근거하여 신명기 기자는 포로기 시대의 편집가이며, 구약의 역사서를 신명기의 관점에서 편집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Weinfeld는 신명기가 포로기 시대에 저작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신명기의 신학을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되게 몰아갔다. 신명기에는 그들의 주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그들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매우 모순되게 만드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다.

## 2.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기록되지 않은 내적 증거들

신명기서가 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개혁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비평학자들의 주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신명기 자체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은 모세의 죽음 기록을 제외하고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신명기 자체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근거는 신명기에 언급된 가나안의 지역들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 신명기에 언급된 우상들 등등이다.

## 2-1. 신명기에 언급된 가나안의 지역들

신명기서에는 다양한 지역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나갔던 장소들이며, 시나이 광야, 아르바 광야, 모압과 암몬 지역들, 즉 요르단 강 동편에 있는 지역과 도시들의 이름들이다(신명기 1-3장). 반면에 요르단 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본문은 아래와 같다.

신 1:23 에스골 골짜기

신 11:29-30 그리심, 에발, 길갈,

신 27:4 에발,

신 27:12-13 그리심, 에발

신 34:1-2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온 땅

위의 지명에서 신명기 34:1-2의 지명들은 예외적이다. 그 이유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 기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이자 대필자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cf. 출애굽기 17:14).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예외적으로 단과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유다 온 땅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수 있었다. 이를 제외하면, 신명기에서 언급된 가나안 땅의 지역은 에스골 골짜기와 그리심산과 에발 산 그리고 길갈이 전부이다. 신명기 1:23 에스골 골짜기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다녀간 곳 중에 한 곳이고, 신명기 11:30의 길갈은 모압 평지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 바로 건너에서 바라 볼 수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명기에서 언급된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그렇다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에서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특별히 언급된 지역은 에발 산과 그리심 산 밖에 없다.

이 두 산은 세겜에 있는 산이며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읽도록 시킨 장소이다.<sup>7</sup>

신명기 11:26-30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7:11-15에는 신명기 11:26-30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세겜에 있는 산이며,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신명기 저작 시기에 요시아 통치 때와 힐기야가 성전 정화 작업 중에 발견한 율법책이 발견된 시기인 기원전 622년경에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은 앗시리아가 점령 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이곳에서 종교적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예루살렘 중심의 제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언약서 낭독 의식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며, 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세겜에서 이 행사를 하도록 신명기가 11:26-30와 27:11-15에서 두번이나 규정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더군다나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신명기 12:5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 신명기 11:29에서 세겜의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했다는 것은 신명기 12:5이 요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중심의 제의 집중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신명기의 저자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제의 집중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 모이라는 내용을 바로 앞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신명기에 기록된 도피성의 목록도 아주 독특하다. 신명기 19:1-13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셋으로

---

7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213.

구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살도록 하게 한다. 하지만 신명기 19:1-13은 도피성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들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20-21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힌다. 반면에 가나안 땅 동편에 만든 도피성은 신명기 4:42-43에서 실명으로 언급한다. 그 도피성들의 이름은 르우벤 지파의 땅에는 베셀, 갓 지파의 땅에는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는 바산 골란이라고 한다. 이처럼 요단 강 동편 지역의 도피성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 이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서 기록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2-2. 레위 제사장의 기업

De Wette는 요시아 때에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중심의 제의 시스템을 통해 제사장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sup> 신명기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권한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17:9; 19:17; 21:5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제사장의 판결에 따르도록 시키고 있고, 신명기 17:18은 왕은 레위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등사하여 읽도록 시킨다. 그리고 신명기 24:8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제의와 관련해서도 신명기 26:3-4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었을 때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해야 할 신앙 고백적 의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레위

8 Jeffrey Niehaus, "Theology of Deuteronomy,"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541.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했다고 한다(신 31:9).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의 권위와 권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과 관련하여 신명기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신명기 10:6-9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지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시키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18:1-2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9</sup>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sup>2</sup>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에서 그 기업은 십일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의 십일조 규정은 민수기 18:21-32의 십일조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민수기 18:21-32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하며, 이 말은 그들의 십일조 모두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십일조는 항상 레위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은 십일조를 먹을 수 있는 바치는 자의 자녀와 노비(신 12:12, 18)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14:29; 26:13) 중에 한 명이다. 물론 이 십일조는 셋째 해에 드리는 십일조 규정이지만, 레위 제사장에게 주는 십일조가 민수기 18:21-32과는 현저하게 다른 분위기 속에 언급된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레위 제사장들의 기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

9 P.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258-259.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매우 영예롭고 특별한 말씀이지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레위 제사장에게는 아무런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들이 가졌던 부와 명예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전은 매우 거대했다. 신전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 신전들은 왕실과 더불어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집트의 경우 19왕조 시대에 이집트의 신전들은 전체 이집트 농토의 1/3을 차지하였고, 기원전 200년경에는 대부분의 이집트 농토가 신전 소유였다. 바벨론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 3(Ur III)왕조 시대의 한 텍스트에 의하면 약 6000명의 여자 직물공이 신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 유다 주변 나라들의 신전들의 위세에 비추어 볼 때 신명기 11:26-30과 27:11-15에서 레위 제사장에게 분깃도 기업도 없다고 한 것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권한과 권세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느헤미야 13:10-13에 의하면 포로후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정상적으로 바치지 않자 레위 제사장들이 생존을 위해 성전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비평학자들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제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고 했지만, 제사장들의 기업에 대한 신명기의 규정은 제사장들의 권한 강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 2-3. 우상숭배 대상

De Wette는 신명기의 저작 목적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퇴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단일신 종교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금지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신명기의 우상숭배 금지를 요시아 시대에 발견된 율법책과 연관 짓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신명기의 우상숭배 금지 규정은 요시아 시대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23:1 이하에

의하면 비평학자들이 신명기서라고 주장하는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책 내용을 들려준 후에 한 첫번째 행동은 요시아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우상을 제거하도록 시키는 것이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우상 제거를 열왕기하 23:4-5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sup>4</sup>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와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벨엘로 가져가게 하고 <sup>5</sup>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떼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고, 바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바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sup>10</sup> 이것은 신명기가 기록되던 시기에 바알 숭배는 아직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요시야 시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가 요시야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비평학들의 주장을 신명기의 이런 현상은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이에 더해 신명기는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했던 특정한 신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10 신명기 7:5; 12:3; 16:21이 열왕기하 23:4-5에 있는 아세라를 언급하고 있지만, 둘은 다른 의미이다. 둘은 동일한 히브리어 아세라[hr'vea]이지만, 열왕기하 23:4-5의 아세라는 가나안의 신 엘의 아내 아세라이고, 반면에 신명기 7:5; 12:3; 16:21의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모든 신상을 일컫는 목상이다. 돌로 만든 것은 주상이라고 부른다.

### 3. 가나안 땅에 대한 신명기의 묘사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소유로 준 땅이다. 비평학자들의 주장대로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이 가나안 땅은 과거에 이미 소유한 땅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이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신명기는 1:1에서 신명기의 메시지가 선포된 장소가 “요단 저쪽 숲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1:8은 가나안 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고 하면서 가나안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보지 못한 땅이고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다. 이 외에도 신명기서의 거의 모든 장에서 가나안 땅이 언급되며, 신명기의 약 95절들에서 가나안 땅은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신 1:7, 8, 21, 22, 25, 35, 36, 38	신 2:29	신 3:25, 28
신 4:1, 5, 14, 21, 22, 25, 26, 38	신 5:31, 33	신 6:1, 3, 10, 18, 23
신 7:1	신 8:1, 7, 8, 10	신 9:4, 5, 6, 23
신 10:11	신 11:8, 9, 10, 11, 12, 14, 17, 21, 25, 29, 30, 31	
신 12:1, 10, 29	신 15:4, 7, 11	신 16:20
신 17:14	신 18:9	신 19:1, 2, 3, 8, 10, 14
신 23:21	신 24:4, 14	신 25:19
신 26:1, 2, 3, 9, 15	신 27:2, 3	신 28:8, 12, 23, 24, 52
신 29:26	신 30:5, 16	신 31:7, 16, 21, 23
신 32:49, 52	신 33:13, 16, 28	신 34:1, 2, 4

이 가나안 땅들에 대한 묘사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과거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로 표현된,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가나안 땅에는 본래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몰아낼 땅이다(신 1:7; 4:38; 7:1; 9:4; 11:25; 12:29; 31:16). 그리고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지만, 아직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다(신 1:8, 35; 6:10, 18, 23; 9:5; 10:11; 11:21; 19:8; 26:3; 31:7; 31:21, 23; 34:4).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땅이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했고, 곧 차지하게 될 땅으로 묘사되고 있다(신 1:21, 38; 2:29; 3:28; 9:23; 11:31; 12:10; 15:7, 11; 16:20; 17:14; 18:9; 19:10, 14; 23:20; 25:19; 26:1, 2; 27:2; 32:49, 52).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신 1:25, 3:25; 6:3; 8:7-10; 9:6; 11:9-12, 14, 17; 26:9, 15; 27:3; 33:13; 33:28).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들이라고 하며(신 4:1, 5, 14; 5:31, 33; 6:1, 18; 8:1; 11:8; 12:1; 24:4, 14), 이 법들을 행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신 15:4; 28:8, 12; 30:16; 33:16).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신 4:25, 26; 28:23, 24, 52; 29:27).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한다(신 11:29-30). 이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고(신 4:21, 22),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때 모세가 본 땅은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유다 온 땅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열왕기하 23:8에서 요시아 시대의 그의 통치 구역인 유다 땅의 북쪽 경계에서 남쪽 경계를 ‘게바에서 브엘세바’라고 한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다. 비평학자들이 신명기가

11 P.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95-96.

기록된 시기라고 말한 요시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과거에 오래전에 이미 정착한 곳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땅은 앗시리아에 빼앗긴 땅이었다. 신명기에는 이 앗시리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한 이미 태동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신명기가 오래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언급할 수가 없다. 신명기 30:5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민족들 가운데 쫓겨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유다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말을 말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 묘사와 관련된 신명기의 이런 특징들은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시아 시대의 저작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 4. 신명기의 언약 양식

비평학자들이 모세의 신명기 저작을 부인하지만, 전통적인 신명기 저작성을 고수하는 개혁주의 또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의 양식과 형태가 고대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체결된 언약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신명기 저작의 고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키첸(K.A. Kitchen)에 의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계약과 법 그리고 언약 체결 전통은 두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계약과 언약 체결 형식이 시대에 따라 변하였고, 둘째는 동 시대의 여러 지역과 나라들은 유사한 계약과 언약 전통을 가졌다는 것이다.<sup>12</sup> 기원전 2500-2300년 경의 에안나툼과 나람-신의 계약과 언약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은 기본 양식으로 되어 있다.

---

12 K.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3), 286-288.

Treaty, Law, Covenant ca. 2500–2300

Eannatum	Naram-Sin
Prologue, historical	Witnesses
Oath + stipulation	Oath + stipulation
	Oath + Deposit, Blessing

이중에서 에안나툼의 언약 체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sup>13</sup>

Treaty of Eannatum

In Eannatum Inanna rejoiced; Inanna grasped his arm and called him by the name Eanna. She sat him on the right knee of Ninhursag.	역사적 서론
Eannatum laid the shushgal-net of Enlil upon the Ummaite and he swore to him: By the life of Enlil, the king of heaven and earth!	맹세
The fields of Ningirsu I will eat up to one karu, and up to the old dike will I claim; but never unto wide eternity will I violate the boundaries of Ningirsu.	규정

키첸에 의하면 신명기의 언약 체결 양식은 기원전 1400-1200년 경에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체결된 계약 체결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그 시대의 언약 체결 약식을 신명기의 언약 양식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Hittite Corpus	Pentateuch, Joshua 24	신명기
Title	Title	서론 - 신 1:1-5
Historical Prologue	Historical Prologue	역사적 서론 - 신 1:6-3:29
Stipulations	Stipulations	규정 - 서론 4장, 기본규정 5장 십계명, 상세규정 6-26장
Deposit/Reading	Deposit/Reading	언약서 보관 - 신 31:9, 24-26 언약서 낭독 - 신 31:9-13
Witnesses	Witnesses	증인 - 신 31:26 책, 신 31:19-22 노래
Curses	Blessings	축복 - 28:1-14
Blessing	Curses	저주 - 28:15-68

13 Samuel Noah Kramer,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3), 311.

하지만 프랜케나(Frankena) 같은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의 언약이 앓시리아 계약 체결 양식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래의 에살함단의 봉신 계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명기의 언약 양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sup>14</sup> 에살함단(Esarhaddon)의 봉신 계약은 계약서에 아술(Ashur) 신의 이름으로 인친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계약서의 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sup>15</sup>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Title 1절	1절 This is the treaty of Esarhaddon, king of the world, king of Assyria, son of Sennacherib ...
Witnesses 2-3절	2절 the treaty which he has made binding with you before Jupiter, Venus, Saturn, Mars, and Sirius; before Ashur ...
Stipulations 4-36절	4절 This is the treaty which Esarhaddon, king of Assyria, has established with you before the great gods of heaven and earth, on behalf of the crown prince designate Ashurbanipal... if you do not serve him in the open country and in the city, do not fight and even die on his behalf, ...
Curses 37-106절	37절 May Ashur, king of the gods, who determines the fates, decree for you an evil, unpropitious fate, and not grant you fatherhood, old age, ripe old age. 38 May Ninlil, his beloved wife, induce him to pronounce evil for you and may she not intercede for you.

그리고 에살함단의 봉신 계약은 계약 체결 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함으로 끝난다.

Date the 16th day of the month Ajaru, in the eponymy of Nabu-bel-usur, governor of Khorsa-bad. Treaty established by Esarhaddon

14 R. Frankena,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and the Dating of Deuteronomy," OTS 14 (1965): 122-154; D. J. Wiseman, The Vassal-Treaties of Esarhaddon (London: British School of Archaeology in Iraq, 1958).

15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533.

concerning Ashurbanipal, crown prince designate of Assyria, and Shamashshumukin, crown prince designate of Babylonia.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앗시리아 봉신계약은 신명기의 양식과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신명기의 저작 시기를 요시아 시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명기의 언약 양식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맺은 계약 체결 양식과 거의 동일한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 문서의 양식에 더 가깝다.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가진 계약 문서 양식이 큰 틀은 동일하지만, 이집트는 히타이트의 계약 양식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이집트가 가진 계약 체결 양식에는 첫 시작 부분이 계약 체결 날짜로 시작하고(ANET 199), 마지막 부분은 저주와 축복 부분 다음에 추서(postscript)가 추가로 있다(ANET 201). 그러나 히타이트가 가진 계약 문서에는 첫 시작 부분에 날짜가 없고, 마지막 부분이 축복과 저주로 끝나고 추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ANET 203, 205).<sup>16</sup>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명기의 언약 체결 양식은 이집트가 가진 언약 문서 양식과 더 닮았다. 신명기 1:1-4에서는 신명기가 기록된 시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신명기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기록한 후 29-34장까지 긴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명기의 언약 체결 양식은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계약 체결 양식 중에서 이집트가 보관한 계약 문서의 양식과 더 닮았다. 이런 점은 비평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명기서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12세기 이전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 5. 신명기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

---

16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99, 203, 205.



신명기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 이것은 레위기나 민수기와 다른 현상이기도 하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천막에서 생활하며, 집단 생활한 것을 전제하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sup>17</sup> 민수기에서도 모든 기록들과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생활을 전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지파별로 계수한 후 그들의 천막을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어 쳤으며(민 1:52),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진영을 이루어 행진하였다(민 2:1-32). 이들 레위기 민수기하고는 달리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생활과 관련된 사건이나 규정이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있을 전쟁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나오지만, 현재도 진영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장막 생활에 대한 기록도 과거 사건과 미래의 삶에 대한 메시지에서 나타나지만, 현재 생활과 관련해서는 단 두 번 신명기 31:14-15에서만 나오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회막에 나오게 한 후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셨다는 기록이다.

대신에 신명기에는 ‘요단’이라는 표현이 27회 사용되어 여호수아서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 당장 신명기 1:1은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고, 1:5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였다고 한다. 신명기 3:27, 4:21-22, 31:2은 모세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의 히브리어 표현은 둘 다 베에베르 하야르덴 **בְּעֵבֶר הַיַּרְדֵּן**이며, 요단 동편과 서편을 명확히 구별할 때에는 요단 동편은 베에베르 하야르덴 **בְּעֵבֶר הַיַּרְדֵּן** 뒤에 미즈레하 **מִצְרֵחָה** (‘해뜨는’) 덧붙여 표시했으며, 요단 서편은 베에베르 하야르덴 **בְּעֵבֶר הַיַּרְדֵּן** 뒤에 메보

17 Mark F. Rooker, Leviticus,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38-39.

핫쉐메스חֲשֵׁמֶשׁ נִיבִּם.를 첨부하였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다(11:31; 12:10; 27:2; 30:18; 31:13; 32:47). 그리고 신명기 27:3, 4, 12은 백성들에게 요단 강을 건너 후에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 제단과 돌 비석을 세워 두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명기는 모세와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동편에 머물며,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미래에 요단을 건너야 하는 땅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12장이 주어진 배경에는 레위기 17장이 있다<sup>18</sup>. 레위기 17:4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난 후에 먹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레위기 17: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를 오해해서 그들이 고센 땅에 살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염소 숭배를 본받아 염소 우상 앞에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던 전통을 따라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고기를 먹도록 레위기 17장은 명령하였고, 이 규정과 더불어 피를 먹지 못하도록 다시 강조하여 명령하였다. 신명기 12장의 규정은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루살렘 중심의 제의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의 진영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고기를 비롯한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대한 메시지가 신명기에서 처음 나오는 곳은 신명기 12장이며, 특히 신명기12:5은 비평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본문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는 표현은 신명기 12장외에도 14장과 16장에서 많이 언급되며 신명기

18 기동연, 『레위기』(서울: 생명의 양식, 2019), 600-602.

15:20에서도 한번 언급한다. 이 본문들은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신명기 12장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문제가 핵심 주제인데 반해 신명기 14장의 경우에는 핵심 주제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먹는 문제는 부차적인 주제이다. 신명기 16장의 핵심 주제는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명기 12장의 먹는 문제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2장의 시작(1-4절)과 끝(29-32절)은 우상 숭배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신명기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신명기 16장은 메시지를 마무리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규정들과 함께 21-22절에서 간단하게 목상과 주상을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세우지 말라고 한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에 대한 언급은 5, 11, 14, 18, 21, 26절에 나오며, 이 본문들은 예외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실 장소에서 먹게 하는 메시지가 이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처음 난 것들을 가져가서 바치고 그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먹어야 되지만, 신명기 12:21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리고 23-25에서는 레위기 17:10-14처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비평학자들이 신명기 12장의 메시지가 제의의 중앙 집중화를 목표로 한다는 주장과 전혀 다른 취지에서 주어진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기 12:21과 레위기 17장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레위기 17장의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고, 그들이 먹을 짐승을 성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용이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광야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규정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반면에 신명기 12:21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져 살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럴 경우 하나님 앞에 또는 성막이 세워져 있는 도시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되는 상황을 신명기 12장이 반영하고 있지만, 신명기 12장의 메시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졌다. 신명기 12:5, 11, 14, 18, 21, 26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는 모두 미래 시제이고 과거나 현재 시제가 아니다. 특히 11절의 하나님의 택하실 장소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선행시키고 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0절은 세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12장의 규정이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먹는 규정이 시행 시기가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라고 말한다. 그리고 셋째는 둘째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안식을 주어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한다. 이 전제와

유사하게 신명기 12:20에서도 21절의 택한 장소를 말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렇기 때문에 비평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한 장소는 요시야 시대와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7장의 하나님 앞에서 먹는 규정을 새로 변경하여 주면서 한 규정이다.

## 6. 사해 남부 민족들 목록들과 아모리와 아낙 사람

신명기 1:6-3:29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부터 모세가 신명기의 언약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때인 40년째 11월 1일 이전에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역사적 사건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정탐꾼 사건과 사해 남부 지역 부족들의 목록과 그들에 대한 특징을 묘사한 것들이다.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천부장과 백부장 등등을 세운 것과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정탐꾼 기사는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번째 차이는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명기 1:22-23

“<sup>22</sup>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sup>23</sup>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듣고 열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된다. 둘째 차이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묘사이다. 민수기 13:29에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남방과 해변 그리고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고 모세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신명기 1:27-28에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 훨씬 강력한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sup>27</sup>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sup>28</sup>우리가 어디로 가랴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민수기 13:28과 32-33에도 아낙 자손에 대해 언급하지만, 신명기 1:27-28에서는 아모리 족속과 아낙 자손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세력으로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왜 가나안 정탐꾼 사건에서 아모리와 아낙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 멸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이유를 찾아 봐야할 것이다.

신명기의 저자는 이에 더해 신명기 2:10-22에서 사해 남쪽 지역에 위치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민족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sup>19</sup>

---

19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97.

민족	르바임 족속	수스/삼숨뎨 족속	에뎨 족속	세일의 호르 족속	엔미스뵤/가데스	아모리
성경	신 2:11	신 2:20	신 2:10-11	신 2:12, 22	신 2:14	신 1:44

위에 언급된 민족들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들 민족들이 모두 창세기 14:5-7에 언급된다는 것이다.

<sup>5</sup>제 십 사 년에 그돌라오뎨와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 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sup>6</sup>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sup>7</sup>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뵤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 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신명기의 이름과 창세기의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동일하다.<sup>20</sup> 창세기의 첫 독자와 신명기의 첫 독자가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왜 두 성경에 이들 민족들이 언급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민족들의 대한 둘째 특징은 이들에 대한 묘사 속에 아낙 자손 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sup>10</sup>이전에는 에뎨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sup>11</sup>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뎨이라 불렀으며

<sup>20</sup>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뎨이라 일컬었으며 <sup>21</sup>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20 E. A. Speiser, Genesis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82), 102. 대하 20:2에서 하사손다말은 엔게디와 동일시되고 있다.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sup>22</sup>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명기 2:10-22에서는 이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묘사하며, 이 아낙 자손들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결과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의 원인이 되었다. 왜 이 민족들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아낙 족속 같은 이 민족들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공격하고 노략하였는데, 그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단까지 추격하여 가서 물리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둘째는 이 아낙 족속 같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21</sup> 신명기 1-3장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도 동일하다. 신명기 1:27에서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조속의 왕 시혼과 아낙 족속과 같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로서 철 침상을 사용하는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신명기 3:11). 이것이 신명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게 겪었던 역사적 내용을 길게 묘사한 목적이기도 하다.

---

21 J.A. Thompson, Deuteronomy (Downers Grove: IVP, 1974), 92.



---

# 신명기 해석과 강해

최윤갑 교수  
고신대학교 구약학

---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신명기 해석과 강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언약(강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학자들은 신명기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설교문 또는 강론, 시와 노래, 십계명 해설, 언약(강신)문서-으로 접근하였다. 신명기의 해석과 관련한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필자는 짧은 지면을 통해 독자들이 숲의 나무를 보듯이 신명기 본문을 세심하게 주해하기보다, 신명기라는 숲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석학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에 나오는 신학적 관점과 주제를 탐독한다면, 독자들은 분명 신명기 해석과 강해를 위한 적절한 안목과 틀을 갖게 될 것이다.

## I. 신명기의 저작 목적

과연 신명기는 어떤 목적에서 기술되었을까? 학자들은 신명기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술되었다고 여긴다. 첫째, 신명기는 출애굽 새 세대가 앞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40년 광야 여정을 통해, 출애굽 세대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 부모 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믿음으로 무장한 세대이고, 머지않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따라서 모세는 정복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뿐 아니라,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신명기를 저술하였다.

둘째, 신명기는 임박한 모세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거쳐 무려 40년동안 사명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그는 언약의 율례와 삶의 양식을 출애굽 세대에게 가르쳤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가운데 출애굽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 공동체를 위한 법과 실천적 모음집을 출애굽 새 세대에게 긴급하게 전수해야만 했다. 언약의 말씀과 함께, 언약 중보자의 지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 이후, 그의 공백을 메우고, 출애굽 새 세대를 언약 백성으로 갱신시키고 세우기 위한 지침으로 주어졌다.

## II. 신명기의 구조

책의 구조는 그 책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는 양식이다. 따라서 신명기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명기 본문에 함의된 의미는 달라진다. 이런 맥락에서, 학자들은 자신의 신학적·해석학적 관점에 따라 신명기의 구조를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신명기를 모세가 출애굽 새 세대에게 선포한 설교 또는 강론으로 이해하였다. 즉, “신명기에 대한 전통적 분석은 이 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임에 전달한 연설 또는 설교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문체를 보면 다소 설교조이며 강권적인 권면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1</sup> 신명기가 출애굽 새 세대에게 모세가 전달한 설교라는 점은 다음의 특징적인 면모들을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 (1) ‘오늘날’ 혹은 ‘오늘’에 대한 빈번한 언급, (2) 여러 곳에서 ‘우리’라는 호칭 사용, (3) 2인칭 대명사들(“너희, 너희들”)의 빈번한 사용, (4) ‘들으라’라는 명령의 반복, (5) 수많은 호격 사용, (6) 과거 사건을 현실속에 역동적으로 재현하는 방법, (7) 청중들로부터의 순종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약속과 위협의 사용, (8) 마음과 지성에 대한 호소, (9) 예화 사용(신 19:5, 출 21:12-14 참조).<sup>2</sup> 이 모든 요소들은 신명기가 설교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 선포된 세 개의 강론 내지는 설교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구약학자 드라이버(S.R. Driver)이다. 그는 1902년판 『국제비평주석』에서 신명기에 관하여 “이 책은 모세가 모압 평원(34:1)에서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는 세 개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할지를 제시한다”라고 밝혔다.<sup>3</sup> 이 강화들은 (1) 도입 강화(1:6-4:40), (2) 율법 해설(5:1-26:19; 27장, 28장), (3) 보충적 역할을 하는 세 번째 강화(29:1[28:69]-30:20)로 구분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다양한 서론(1:1-5; 4:44-49), 결론(31:1-8; 32:48-34:12)로 구성된다.<sup>4</sup> 이들이 신명기가 세 개의 강론으로 구성된 모세의 설교로 보는 이유는 신명기 1:1-5, 4:44-49, 29:1(33:1)에서 유사한 도입 문구를 사용한 편집적 서문(editorial superscription)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신명기의 연구사를 통해 이 책이 모세가 모압 평야의

1 유진 메릴, 『신명기』, 신윤수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1994), 27-28.

2 패트릭 밀러, 『신명기』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45.

3 S.R.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ICC (Edinburgh: T & T Clark, 1902), i.

4 Driv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i; 유진 메릴, 『신명기』, 28.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던 세 개의 설교문 또는 강론이라는 주장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둘째, 두에인 L. 크리스텐센(Duane L. Christensen)은 신명기를 동심원적 구도를 가진 노래로 해석하였다.

A. 외부 구조: 뒤돌아봄 (1-3장)

B. 내부 구조: 대 연설 (4-11장)

X. 중심 내용: 언약적 규정 (12-26장)

B'. 내부 구조: 언약 의식 (27-30장)

A'. 외부 구조: 앞을 내다봄 (31-34장)

크리스텐센의 분석에 의하면, A와 A'(1-3장과 31-34장)는 신명기 3, 31, 34장에만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연결된 부분으로 신명기의 전체적인 서론과 결론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B와 B'(4-11장과 27-30장)는 그리심 산과 에발 산(11:26-32과 27:1-14)에서의 제의적 의식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언급과 연결된다. 끝으로, 신명기의 중심부를 이루는 X는 신명기의 핵심 내용(12-26장)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중요한 교훈이며, 가끔 신명기 법전으로 불리기도 한다.<sup>5</sup> 크리스텐센은 이와 같은 세심하게 균형잡힌 신명기의 구조에 근거해, 이 책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작성되었고 널리 회자되었던 “음악적 매체”라고 주장한다.<sup>6</sup> 하지만 송병현은 크리스텐센의 구조 분석이 모세의 강론 범위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위의 대칭 구조가 신명기 구조와 메시지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sup>7</sup> 다시 말해, 크리스텐센의 구조 분석은 신명기의 본문이나

5 두에인 L. 크리스텐센, 『신명기 상』, 정일오 역, WBC. (서울: 솔로몬, 2001), 74-75.

6 크리스텐센, 신명기 상, 74-75.

7 송병현, 『신명기』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14), 68.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인위적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로핑크(N. Lohfink), 카우프만(S.A. Kaufman), 올슨(D.T. Olson)은 신명기의 주요 부분을 십계명의 해설로 이해하였다. 로핑크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신명기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주장하였고, 이어 신명기 6-11장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에 대한 권위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 또는 설명이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비슷한 관점으로, 카우프만은 신명기 12-26장의 율법 설명은 십계명에 강조된 기본적 도덕 원리와 삶의 실천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올슨 역시 신명기에서 십계명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의를 강조하는데, 그는 십계명을 진술하는 신명기 5장의 구조가 ‘신명기 전체 구조의 축소판’이라고 역설하였다.<sup>10</sup> 아래의 도표는 신명기의 십계명과 그 해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제	하나님	인간
권위	제 1계명: 5:7 (6-11장)	제 5계명: 5:16 (16:18-17:13)
위엄	제 2계명: 5:8-10 (12:1-32)	제 6-8계명: 5:17-19 6 <sup>th</sup> :(19:1-21:23) 7 <sup>th</sup> :(22:1-23:14) 8 <sup>th</sup> :(23:15-24:7)
헌신	제 3계명: 5:11 (13:1-14:21)	제 9계명: 5:20 (24:8-16)
권리와 특권	제 4계명: 5:12-15 (14:22-16:17)	제 10계명: 5:21(24:17-26:15)

표1.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과 그 해설<sup>11</sup>

8 N. Lohfink,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heitungsfragen zu Dtn 5-11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전정진,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 이해,”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61.

9 Stephen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al Law,” MAARAV 1(1979), 105-158.

10 D.T. Olson,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OB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5.

11 송병현, 『신명기』, 69.

괄호 밖에 있는 성경 구절은 구체적인 십계명의 조항들이고, 괄호 안의 성경구절들은 그 십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명기 본문이다. 전체 신명기 말씀이 십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계명들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구조를 띤다는 주장은 신명기의 해석에 큰 빛을 던져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명기의 서론과 결론 부분을 어떻게 십계명과 적절하게 연결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난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상당수의 학자들은 신명기를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언약 형식의 문서(covenant formula document)”로 해석하였다. 대표적으로, 폰라트(G. Von Rad)는 신명기가 언약 갱신의 절기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신명기를 제의적인 맥락과 연결시켜 아래와 같은 구조를 제안하였다.

#### 시나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역사적 전개와

이것들과 관련된 권계적인 자료	1-11장
율법낭독	12:1-26:15
계약조인	26:16-19
축복과 저주들	27-34장 <sup>12</sup>

와인펠트(Moshe Weinfeld)는 최근에 발견된 술한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들의 빛 아래에서 신명기를 조망함으로써 하나의 언약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식별해 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의 요소들이 계약 공식구조로 변형되었음을 밝혔다.

---

12 Gehard Von Rad, Deuteronom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26-33; Ibid,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6), 22-23; 밀러, 『신명기』, 45-46.

서언	1:1-6a, 5:6a
역사적 서론	1:6b-3:29, 5:1-33; 9:7-10:11
충성을 요구하는 기본조항들	4:1-23, 6:4-7:20, 10:12-22
계약구절들	12:1-26:19
증인의 요청	4:26, 30:19, 31:28
축복과 저주들	28:1-68
저주 맹세	29:9-28
계약서 보관	10:1-5, 31:24-26
정기적 낭독	31:9-13
복사본들과 사본들	17:18-19, 31:25-26

와인펠트는 확장된 저주와 축복 부분, 증인의 요청, 조약 문서 보관, 복사본들의 관리문제, 정기적 낭독, 그리고 저주의 맹세 부분등에서 정치적 언약의 표준적 구조가 보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지난 40년 이상의 연구 결과로 학자들은 표준 헛 언약(조약) 문서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메릴(Eugene H. Merrill)은 신명기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권면, 찬송, 그리고 기타 시문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혼합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본질적인 핵심은 그 문체와 목적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신명기를 아래와 같은 언약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1) 전문 : 1:1-5

(2) 역사적 프롤로그 : 1:6-4:40

---

13 Moshe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65-66; 밀러, 『신명기』, 46-47.

(3) 일반적 조항 : 5:1-11:32

(4) 구체적 조항 : 12:1-26:15

(5) 복과 저주 : 27:1-28:68

(6) 증인 : 30:19; 31:19; 32:1-43<sup>14</sup>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이상의 내용을 살필 때, 신명기가 고대근동의 언약 형식을 따라 구성된 언약 문서라는 점을 주장하는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모세가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언약 형식을 따라 신명기를 저술하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맺은 그 엄중한 언약을 기억할 뿐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였을 것이다. 신명기를 통해 출애굽 새 세대는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해, 필자는 신명기를 모세가 여호와와 출애굽 새 세대간의 언약 갱신을 성취하려는 의도로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 형식을 따라 작성하고 선포한 고별설교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상에서 신명기가 다양한 방식-설교, 노래, 십계명의 해설집, 언약갱신 문서-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살폈고, 각각의 논리적 설득력과 한계가 있음을 살폈다. 특히, 신명기가 단순히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문서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상, 신명기는 그 길이와 분량에 있어 현존하는 언약 문서들을 훨씬 능가할 뿐 아니라, 당시 언약 문서에는 흔히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혼합 장르-여정, 권면, 찬송, 기타 시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가 보편적으로 견지하고 있던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톤과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성과 감성을 적절하게 어루만져

---

14 메릴, 『신명기』, 30.



그들의 결단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설득적이고 감동적인 어투와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신명기를 영적·공동체적 권위를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 세대를 교훈하고 지도하는 설교 또는 강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그 하부구조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갱신을 의도하는 언약 문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는 여호와와의 언약 갱신을 염두해 둔 모세가 모압 평원의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관계로 초대하고, 그 관계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친 언약 갱신을 위한 설교(문)이다.

### III. 언약(갱신) 문서로서의 신명기 해석

#### 1. 전문(1:1-5)

신명기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1:1).”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구절은 신명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출애굽 새 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한 설교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는 모세가 선포한 강론의 주된 내용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 3절은 그의 강론이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사항, 즉 언약의 갱신임에 관한 것임을 알려 준다.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전문(前文)으로서, 신명기 1:1-5은 그들의 언약이 위대한 왕, 즉 여호와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 모든 체결과 갱신이 하나님의 섭리로 임명된 중재자-대변인, 즉 모세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시한다.<sup>15</sup> 결국 모세는

15 메릴, 『신명기』, 30.

이 전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 단락은 이후에 이어질 역사적 프롤로그(1:6-4:40)와 함께 모세의 첫 설교가 언약백성의 초기 역사와 광야 여정의 비망록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16</sup>

## 2. 역사적 서문(1:6-4:40)

이 단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과 광야 여정을 상세하게 다룬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언약 문서의 서문은 위대한 왕이 자신의 봉신들에 대한 패권과 권리를 주장할 근거로서 그들의 과거 관계와 봉신을 위해 큰 왕이 행하였던 업적들을 회상하곤 하였다. 주로 위대한 왕이 봉신들을 제 3자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였거나,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에서 그들을 보호하였거나, 또는 역심을 품지 못하도록 과거 봉신들의 반역과 그에 대한 응징이 회상의 내용으로 다루어진다.<sup>17</sup>

신명기의 역사적 프롤로그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되짚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유심히 살펴보면, 이 단락은 세 가지 중요 요소들을 전달한다. 먼저, 이 서문은 과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준다. 여호와는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지시하셨다(1:33).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안으시고, 지금 이 곳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고, 성실하였는지를 설명한다(1:31).

---

16 S. Dean. McBride, "Polity of the Covenant People: The Book of Deuteronomy,"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ical and Theology 41 (1987), 231-37.

17 메릴, 『신명기』, 30.

둘째, 이 단락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태도와 믿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호렙산을 출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아라바 산지와 평지, 네겟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을 여행하게 된다. 이러한 장구한 여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모세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1:32).”라고 평가한다. 즉, 그들은 가데스바네아 사건 뿐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반역(1:26-28, 32; 3:26)을 통해,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패역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이 단락은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되는 율법 실천의 유익함과 축복을 강조한다. 신명기 4:1-8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언약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6, 8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실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 율법에는 신비한 지혜, 능력,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실천할 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즉 신적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음으로, 규례와 법도를 행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공의로운 큰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신명기에 명시된 율례와 법도는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땅의

법과 규례와는 확연히 구별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할 때,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요약하자면, 이 언약의 서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적 주도권이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한다. 아울러, 광야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향해 얼마나 패역하였는지를 강조한다. 언약 관계를 향해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심각한 괴리감-신실함과 패역함-이 모세가 출애굽 새 세대를 향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언약에 충성할 것을 강론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임을 짐작케한다. 나아가, 이 서문은 언약의 핵심을 이루는 율례와 법도를 실천할 때,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신적 지혜와 축복을 강조한다.

### 3. 일반적 조항(5:1-11:32)

언약의 일반적 조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다음 단락의 구체적 조항과 함께 “백성의 전체적인 삶을 지도하며, 국체(國體)를 규정하는 헌법적 대요강(大要綱) 혹은 헌법”이다.<sup>18</sup> 이 조항들은 언약 “공동체의 통합성과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그 공동체를 광범위한 공동체적 규범으로 무장시키고자 하는 현저한 관심”을 보여준다.<sup>19</sup>

이 조항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규정짓고 유지하는 핵심 조항인 십계명으로 시작된다. 십계명은 신명기 언약 문서의 심장부에 해당한다.<sup>20</sup>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언약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큰 왕, 여호와와

18 McBride, “Polity,” 237.

19 밀러, 『신명기』, 43.

20 송병현, “너희가 지킬 율법의 골자는 이러하니라,”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53.

정체성과 그를 섬기는 백성들의 신성한 계약적 의무들을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언약 관계안에서 백성들이 상호간에 견지해야 할 삶의 양식과 태도를 설명한다. 비록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서 그들이 확립하고 유지해야 할 범우주적 사회 질서와 삶의 원리들을 기술한다.<sup>21</sup>

다음으로, 일반적 조항은 널리 알려져 있는 쉼마 교육을 다룬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십계명에 기초해, 모세가 출애굽 새 세대에게 쉼마 교육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섬기고, 어떤 종류의 우상 숭배도 금지하라는 신명기의 전체적인 의도를 전달한다.<sup>22</sup> 놀라운 사실은, 십계명과 쉼마 교육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신명기의 다음 장들(6-11장)과 단락에서 반복해서 등장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다른 신들”(6:13, 14; 7:4; 8:9; 11:16, 28), “섬기고 절하면”(8:19; 11:16),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6:23; 7:8, 19, 8:14; 9:26, 28, 29),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4:29; 10:12; 11:13; 13:3; 26:16; 30:2, 6, 10), 그리고 “들으라...사랑하라”(10:17-18, 19-20; 27:9-10).<sup>23</sup> 다시 말해, 신명기의 전체적인 말씀은 십계명과 쉼마 교육을 두개의 중심 축으로 삼아 펼쳐지고 있다. 십계명은 언약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쉼마 교육은 율법 준수를 준거해 언약 당사자들-여호와와 이스라엘-간에 발현되어야 할 배타적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신명기 본문들은 이 언약 관계의 핵심 사상들을 일관성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21 송병헌, “너희가 지킬 율법의 골자는 이러하니라,” 255.

22 밀러, 『신명기』, 49.

23 밀러, 『신명기』, 49.

왕으로 섬기고, 백성들 상호간에 공의와 인애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땅에 건설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신명기 7-11장은 법도를 지키는 백성의 축복(7:12-26), 율법과 규례를 불순종하는 백성의 저주(9:1-29),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강조(8: 11-20), 그리고 이스라엘에 차지할 땅(8:1-20; 11:8-25)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4. 구체적 조항(12:1-26:15)

언약 문서의 구체적 조항은 5장의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신명기 12:1-26:15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율례와 규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상 제단을 헐 것(12장),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성읍을 진멸할 것(13장), 정결법과 십일조(14장), 안식년 규례(15장),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관한 규례(16장), 레위인, 점쟁이, 참선지자에 대한 규례(18장), 도피성 제도에 관한 규례(19장), 전쟁에 대한 규례(20장), 결혼을 파기하는 일들에 대한 규례(22장), 소산의 만물과 십일조 규례(26장). 신명기 연구사를 통해, 학자들은 이 중심단락의 다양한 율법과 규례들이 어떤 해석학적 원리와 동기에 의해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였다. 학자들은 이 부분의 율법은 내적 통일성이 없고 책의 다른 부분과 어떤 뚜렷한 연관성이 없이 무작위로 배열된 것으로 받아들였다.<sup>24</sup>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 12:1-26:15이 언약의 구체적 조항의 진술이며, 아무렇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배열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카우프만은 12-26장의 율법들이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언약의 구체적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부분의 순서에 대한 열쇠가 십계명 자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 구체적 조항들이 십계명의 순서에 따른 세부 사항

24 R.H. Pfeiff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ndon: Adam & Charles Balck, 1952), 232.

또는 적용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sup>25</sup> 카우프만의 주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 12:1-26:15이 십계명과 쉼마 교육이 다루는 다양한 관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행동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의 본질적인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sup>26</sup> 이후 카우프만의 주장은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이 단락의 해석학적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빛을 던져 주었다. 전정진은 카우프만의 견해를 수용하여, 신명기 12-26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 신명기 12-26장: 규례와 법도

표제 “이는 규례와 법도니라(12:1)”

제 1, 2 계명에 대한 설명 : 다른 신들에 대한 금지(12:2-13:18)

제 3계명에 대한 설명 : 하나님의 이름(14:1-21)

제 4계명에 대한 설명 : 안식일(14:22-16:17)

제 5계명에 대한 설명 : 부모와 권위(16:18-18:22)

제 6계명에 대한 설명 : 살인(19:1-22:8)

제 7계명에 대한 설명 : 간음(22:9-23:18)

제 8계명에 대한 설명 : 도덕질(23:19-24:7)

제 9계명에 대한 설명 : 거짓 증거(24:8-25:4)

제 10계명에 대한 설명 :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25:5-26:15)<sup>27</sup>

한 단락과 그 다음 단락의 규례와 법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이 잘 보여주듯이,

25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105-158; J.H. Walton,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GTJ 8 (1987), 213-25; 메릴, 『신명기』, 31.

26 밀러, 『신명기』, 48-49.

27 전정진,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 이해,” 62.

신명기 12-26장에 나타난 규례와 법도들이 대체로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각각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그것을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올슨(D.T. Olson)은 신명기 12-26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단락의 규례와 법도들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였다. 첫째, 제 1 계명의 중요성이 신명기 전체에 걸쳐 강조되어 나타난다(12:30-31; 13:2, 3, 6, 7, 13; 17:3; 18:20; 19:9; 20:18; 26:16-19). 둘째,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의 기원을 기억할 것을 강조한다(13:5-10; 15:15; 16:1-12; 17:16; 20:1; 23:4; 24:9, 18, 22; 25:17; 26:5-9).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그것에 대한 회상은 전체 율법이 강조하는 백성의 순종을 이끌어 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sup>28</sup> 셋째, 규례와 법도 전체에 걸쳐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넷째, 신명기는 신실한 죽음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강조한다. 다섯째, 규례와 법도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인간, 그리고 피조물 사이의 상호관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sup>29</sup> 결국 언약의 구체적 조항으로서 신명기 12-26장은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구현되고 시행될 것을 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새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염원하고 있다.

## 5. 복과 저주(27:1-28:68)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는 관계의 구체적인 규례들을 다룬 후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조항을 언급한다. 어떤 계약이든 그 관계에 대한 보상과 제재를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 조약의 공적 확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는 봉신의 충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

---

28 전정진,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 이해,” 63.

29 Olson,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12, 15, 63.



하여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반면, 그들의 반역을 엄중하게 응징할 때, 주권자는 정당하게 자신의 주권과 권위를 유지하였다.

신명기 27:1-28:68은 순종할 때의 축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 항목들을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조항들에 순종할 때, 전쟁에서의 승리(28:7), 토지소산의 풍년(28:8), 다산(28:4), 성읍의 안전(28:3), 생축의 번영(28:4), 때에 맞는 적절한 비(8:12)를 축복으로 누릴 것이다. 반면, 불순종할 때, 그들이 경험하게 될 저주는 축복의 항목들보다 더욱 다양하고 장황하게 언급되고 있다: 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채(28:21-22), 성읍의 저주와 파괴(28:16), 백성과 생축의 불임(28:18), 가뭄(28:24), 적군에게 패함(28:25),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28:27), 토지 소산의 약탈(28:33), 약혼자와 자녀의 약탈(28: 30, 32), 재앙과 질병(28:59).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의 항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헌신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반대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동시에 갖도록 한다. 신명기가 언약의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있어 학자들이 가장 큰 근거와 체계를 발견한 부분은 다른 아니라 이 축복과 저주의 항목들이다. 다소 자의적인 것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의 행동들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목록은 이제 이 축복과 저주의 항목들을 통해 언약 상호간의 공식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sup>30</sup>

## 6. 증인(30:19; 31:19; 32:1-43)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는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갖기 위한 절차로서 증인을 세우는 것을 요했다. 헷 전통에서 이 의식은 주로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마 신들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언약 조건에 충실한 계약 당사자에게 호의를

---

30 메릴, 『신명기』, 32.

보증할 뿐 아니라, 불성실한 당사자에게는 그 축복을 철회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sup>31</sup>

그렇다면 유일신론을 주창하였던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을 완결하기 위해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을까? 신명기 30:19과 32:1-2에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그 언약 체결의 적법한 증인으로 내세웠다. 신명기 언약의 법적·계약적 성격은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세워질 때 완전하게 표현된 것이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이 상호간에 맺었던 언약 체결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성들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그 언약속에 내포된 여호와의 선하신 본성과 약속들,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장차 그가 성취할 종말론적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새창조를 내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마지막 단락은 언약 중재자인 모세의 리더십 이양(31장)과 모세의 죽음과 묘비명(34장)에 관한 진술을 다루며 신명기를 마무리 짓는다.

이상의 진술은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언약 형식을 갖춘 언약 문서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sup>32</sup> 물론, 앞서서 강조하였듯이, 모세는 이 언약과 관련한 가르침을 강압적인 법률 형식이 아닌, 자신의 회상, 격려, 노래, 그리고 설득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삼는 설교 양식을 빌어 전달하였다. 따라서 모세의 강론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에 내포된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과 그 유익함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며, 그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와와의 언약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아가, 구속사에

---

31 메릴, 『신명기』, 32.

32 메릴, 『신명기』, 32; Kaufma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105-158; Walton,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213-25; Olson,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12, 15.

오고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들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이 땅가운데 언약 관계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견지해야 함을 결단하게 되었다.

#### IV. 신명기 해석과 강해를 위한 중심 주제

이상에서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 신학적 관점-언약(갱신)-을 살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적절하고 세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중요 신학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다. 신명기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갱신을 근본 목적으로 삼는 내용과 양식을 가진다면, 이 책은 전반적으로 언약의 두 당사자인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마련이다. 그 외에 신명기는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예배’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신실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와 관련한 ‘마음의 할례’를 다루고 있다.

##### 1.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여호와라는 언약 이름은 무려 221회 등장한다.<sup>33</sup>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자기 백성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소통하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다. 산위에 임하셔서, 그들과 소통하고 말씀하시는 등 다양한 하나님의 신현은 하나님은 그런 내재적 본성을 현시한다. 반면, 하나님은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할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며 영광가운데 좌정하신 절대적 초월자이시다(4:11-12; 5:4-5, 22-26; 9:10, 15; 33:2). 찬란한 빛, 불,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흑암과 어둠은 하나님의 타자성(otherness)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티프다.

33 메릴, 『신명기』, 5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상들을 통해, 언약 관계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어, 자기 백성의 선택자(신 26:5-9)이고 애굽과 광야에서의 구속자(1:30-31; 3:34-39; 6:21-23; 8:14-16; 11:2-7; 16:1-7; 26:6-9).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 관계를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 관계로의 헌신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신적 전사(2:21-22, 30-31; 7:1-2, 20-24; 31:4)이고 은혜로우신 분(32:15-18), 그리고 장차 도래할 구속자이자 심판자(7:13-16; 11:14-15; 30:3-9; 32:19-43; 33:2-29)이다. 즉, 이스라엘을 언약관계안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성취하신 승리, 구원,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구속역사가운데 열방과 만물을 장차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표상들과 행하심은 그의 성품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는 은혜롭고(5:10; 7:9, 12), 다정하고(1:31; 7:7-8, 13), 의롭고(4:8; 10:17-18), 자비롭고(4:31; 13:17), 강하고(4:34, 37; 6:21-22), 거룩하고(5:11), 영광스럽고(5:24-26), 신실하고(7:9, 12), 정의로운 분(32:4)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은 부성(父性)적인 사랑과 책임감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여호와에 소급된다(1:31).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출애굽 새 세대에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애는 그 어떤 표상보다 언약 관계에 충실할 뿐 아니라 유능하신 하나님을 전달하고 있다.<sup>34</sup>

다음으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으로 묘사된다(4:37; 7:6-7; 10:15; 14:2).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의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롱맨 III(Tremper Longman III)와 딜라드(Raymond B. Dillard)가 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장소와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명기에서 땅을 정복하게 되고,

34 메릴, 『신명기』, 49.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를 함의한다.”<sup>35</sup> 이렇게 여호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라로 세우셨고(출 19:5-6), 구속 역사가 잘 보여 주듯이,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헌신과 신실함을 통해 장차 열방 가운데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다.

## 2. 예배의 중앙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만 했다(12:5, 11, 14, 18, 21, 26; 14:23-25; 15:20; 16:2, 6, 11, 15; 17:8, 10; 18:6; 26:2).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택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와 제사장을 직접 택하셨다. 비평학자들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예배 장소의 선택과 중앙화(centralization)에 대한 강조가 후대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집중시켰던 종교 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주장하였다.<sup>36</sup>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 살필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소로 선택하셨음을 언급한다(삼하 5:5-6; 6:1-15; 24:8-9; 열상 2:11; 열상 11:36, 42). 다시 말해, 요시야 왕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드릴 예배 처소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들이 예배하길 원하셨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또한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35 Tremper Longman III &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Zondervan, 2006), 116.

36 Longman III &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116-17.

드려질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셨다. 예배의 중앙화는 신명기가 이상으로 삼는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소”의 신학적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할 뿐 아니라, 그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언약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향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표방하는 것이다(7:6; 14:2; 26:18).<sup>37</sup>

### 3. 마음의 할례

할례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담보하는 언약의 구체적인 표징이다(창 17: 11-12).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였을 뿐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표방할 수 있었다. 할례의 중요성은 모세가 그 예식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한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출 4:24-26).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애굽의 속박과 괴로움에서 구속하기 위해 택함받는 지도자가 그 예식을 소홀히 하고, 더욱이 그의 자녀들이 언약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할례란 남성의 육체에 단순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확립하고, 그것에 기초한 특별한 권리와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증하는 증표이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

37 Longman III &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117.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12-1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6)

왜 마음의 할례일까? 구약 시대에 마음이란, 한 사람이 감정, 계획, 의지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나아가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감정, 계획, 의지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일치하게 되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하였다. 또한,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내린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게 되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었다.

모세오경의 역사를 살필 때,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을 경험하였고, 시내산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레위기를 통해, 그들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민수기 13-14장이 보여 주듯이,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40일동안 정탐한 후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어 모압·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며, 우상을 숭배하였다(민25). 즉,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영적 지도자를 배척하였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통제하는 마음이 할례 받기 원하였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경외함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하였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할례라는 신학적 주제는 이후 선지서와 신약 성경에서 다시 중심 주제로 다루어진다. 예레미야 4:4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체의 할례는 외적인 의식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을 향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헌신과 순종을 담보한다. 로마서 2:29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 에게서니라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참 유대인임을 주장하면서, 이 내적 변화를 성령의 사역과 연결시킨다. 즉, 외형적 신앙의 모습, 행위, 섬김이 언약 백성 됨의 참된 표지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헌신을 통해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가 약속에 참여하게 될 참 언약 백성의 기준인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모세오경에서 오직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신학 주제이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할례이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백성은 유흥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흥과



고난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와 율례와 계명을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새 세대가 새로운 땅과 환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제 신명기를 통해 언약 관계의 핵심 요건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선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두에인 L. 크리스텐센, 『신명기 상』, 정일오 역, WBC. 서울: 솔로몬, 2001.
- 송병헌, “너희가 지킬 율법의 골자는 이러하니라,”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251-266.
- ....., 『신명기』.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14.
- 유진 메릴, 『신명기』, 신운수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1994.
- 전정진, “십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 이해,”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 패트릭 밀러, 『신명기』,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Driver, S.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ICC. Edinburgh: T & T Clark, 1902.
- Kaufman, Stephen.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Law,” MAARAV 1(1979), 105-158.
- Lohfink, N. Das Hauptgebot: Eine Untersuchung Literarischer Einheitsfragen zu Dtn 5-11.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3.

- McBride, S. Dean. "Polity of the Covenant People: The Book of Deuteronomy,"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ical and Theology 41 (1987), 229-244.
- Olson, D.T. Deuteronomy and the Death of Moses: A Theological Reading, OB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Pfeiffer, R.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ndon: Adam & Charles Balck, 1952.
- Rad, Gerhard Von. Deuteronomy,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 .....,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6, 1-78.
- Tremper Longman III &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Walton, J.H. "Deuteronomy: An Exposition of the Spirit of the Law," GTJ 8 (1987), 213-25.
- Weinfeld, Moshe.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

# 신명기 난제

신득일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

## 1.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충격적으로 여겨진다. 누구든지 오경을 읽을 때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백성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한 모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모세도 자기가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신 3:25).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난 후에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거듭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

신명기는 세 군데 본문에서 모세가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신 1:37) ;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 ;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신 4:21).

먼저 신명기 1:37에서 “너희 때문에”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구절의 문맥이 정탐꾼 사건이라는 데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 사건 때문에 나타난 백성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sup> 그런데 정탐꾼 사건으로 인한 백성의 반란에서 모세가 벌을 받을 만한 일도 없고, 또 벌을 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 구절의 ‘너희’는 백성을 가리키지만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탐꾼 사건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이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모세가 정탐꾼 사건 당시에 백성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승계할 것이라고 말하는 문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38).

모세가 하나님께 배제되는 것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백성의 반란행위가 모세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백성의 불평이나 반란이 없었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의 책임을 말하지 않는데<sup>2</sup> 만약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지도자 자질이 결여된 연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19.

2 이것을 두고 Mayes와 같이 신명기 기자는 모세의 결백을 강조하고 제사문서는 모세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A. D. H. Mayes,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79), 147.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다(민 20:12). 또 모세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백성의 탓으로 돌렸다 :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 이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치사 ‘때문에’(lema'an)를 ‘위하여’로 번역하기도 한다.<sup>3</sup> 이 말은 모세가 죽는 것을 백성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 백성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 왜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이 백성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기보다는 백성들의 반란이 그가 죄를 짓는 동기가 되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모세가 지은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민 20:12). 그 불신은 백성의 반란행위와 같은 성격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다. 그 결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온 백성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기회를 그들이 빼앗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가혹한 심판을 불러오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시다는 것이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세속사회에 적용되는 원리와는 달리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

3 T. Work, Deuteronomy (Grand Rapids, Michigan: Brazos Press, 2009), 57.

일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sup>4</sup>

## 2.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2:9, 19)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또 그것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을 괴롭히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물론 이 명령은 상황적인 금지('al + 간접명령형)이기 때문에 그 민족과 영원히 전쟁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고 이 역사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들을 괴롭히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차지해서 지파에 배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실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치룬 전쟁 상대는 모압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었다(민 21:21-31).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 건너편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지역을 통과하기를 청했지만(민 21:22; 신 2:28) 시혼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군에 대한 소집 명령을 내리고 전면전에 나섰다(민 21:23). 이스라엘은 당시 시혼 왕이 요단 동편 땅을 압복강까지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우회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인의 죄가 관영할 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창 15:16)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이제 끝났다는 말이다. 그 지역을 침략해서 점령한 시혼 왕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북진에 위협을 느끼고 전면전에 나섰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된 일이다. 여호와께서 시혼 왕을 이스라엘에 넘기시려고 그의

---

4 신득일, 『광야의 반란』 (서울: CLC, 2014), 204-205.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던 것이다(신 2:30b). 하나님은 아모리 인의 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진멸하여 바치는 ‘헤렘’의 법칙이 적용되었다(민 21:34-35).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는 시혼의 도성인 헤스본의 강한 위상을 노래한 고대시인들의 노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민 21:27-28). 헤스본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을 상대로 전쟁한 것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시혼이 모압지역을 미리 점령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시혼을 일으켜서 이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셨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곳을 통과할 시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모압을 점령했을 것이다. 만일 모압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모리 사람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모압에게 땅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역사는 입다가 잘 기억하고 암몬 왕에게 상기시켰다(삿 11:20-23). 여기서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혼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이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이 단순히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기업을로 배정할 땅 점령의 의미가 있다(민 21:31).

### 3.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강까지 삼십 팔년(2:14)?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요약해서 언급한 곳에 나온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 동안이라”(2:14).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을 보낸 곳이기도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방황한 후 되돌아 온 곳이기도 하다. 세렛 강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강이다. 이 거리는 홍해의 아카바만을 둘러서 가도 오백 킬로미터도 안 되는데 삼십 팔 년 걸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간이다. 이것은 광야여행 전체 기간 삼십 년과도 맞지 않는다(1:3).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 유대인 주석가 나흐마니데스(Nahmanides)는 이 구절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강을 건너기 전에 삼십 팔 년 걸렸다”고 번역한다.<sup>5</sup>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강 사이에 걸리는 시간보다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기 전에 걸린 시간을 나타낸다. 이것은 광야에서 머문 전체 기간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한글번역의 “떠나”이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간 날들은 삼십팔 년이다”이다. 이것은 정탐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광야여행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란 광야의 방랑이 시작되는 첫 지점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같은 구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란 말도 쉽게 이해된다. 여기서 “모든 군인”은 광야의 인구조사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

5 Michael Carasik (ed.), Deuteronomy: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rans Michael Carasik, The Commentators' Bible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15), 17.



#### 4. 신명기의 안식일 근거(5:15)

세세하게 본다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일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 중 안식일은 창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신명기는 출애굽에 근거를 둔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야웨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웨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5:15). 출애굽 때 하나님의 큰 기사와 능력으로 이집트의 군주에게서 막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의 창조주라는 것이 핵심진리가 될 수 있다. 안식일이 창조주의 사역을 마치신 창조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십 년이 지난 후 신명기의 관점에서 창조는 구속의 행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회고를 통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광스런 구속을 상기함으로써 정복과 같은 남은 구속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동기를 창조로 제시한 것은 안식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고, 신명기에서 구속을 동기로 제시한 것은 안식의 목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원본과 사본의 문제가 아니고 두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의 근거는 창조와 구속으로 조화를 이루고 신명기에서 계시역사의 전진을 보여준다.

새 언약의 성도는 이 안식을 주일에 누린다. 그 근거는 창조도 아니고 출애굽도 아니다. 성도가 주일에 누리는 안식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 즉 재창조와 구속의 정점이 된다. 신약의 안식은 사망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지키게 된다.<sup>6</sup>

---

6 신득일, 『구약정경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11), 291-292.

## 5. 젖과 꿀이 흐르는 땅(6:4, 히 3)?

약속의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곳은 많다(출 3:8, 17; 13:5; 33:3; 레 20:24; 민 14:8; 16:13-14; 신 6:3(4); 11:9; 26:9, 15; 27:3; 31:20; 수 5:6; 렘 11:5; 32:22; 겔 20:6, 15). 이 표현을 지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남부에는 목축을 통해서 ‘젖’이 나고 북부에는 꽃이 피어서 ‘꿀’이 생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꿀은 야생벌과 대추야자에서 얻는다고 한다(Milgrom).

그렇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표현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양식이다. 가나안 땅의 풍요는 성경 이전의 사건을 언급하는 고대문헌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 중왕국 제12왕조의 초에 나온 ‘시누헤의 이야기’에서 시누헤가 가나안의 비블로스와 동방(Qedem)으로 가서 상부 고원(Retenu)의 왕이었던 암미엔시에게 이집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상황에서 야(Yaa)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언급했다 : “거기에는 무화과와 포도가 있고,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고, 꿀과 올리브가 풍부하다. 그 땅의 나무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달려있다. 보리와 에마밀이 있고 모든 종류의 가축이 수없이 많다”(ANET, 19). 팔레스타인 북부의 상황이라면 이 보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본문은 다르게 그 땅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 차이의 강조점은 물의 양과 물을 얻는 방법에 있다. 이집트에는 비가 오지 않지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파종하기가 용이하고 관개수로를 통해서 물대기가 발로 물대듯이 할 수 있었다고 한다(신 11:10). 그러나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한다는 말은 샘물이나 우물에서 물을 얻는다는 말이다. 또 그들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야 한다(신 11:14).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신 11:13).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말이다.

신학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땅”이란 뜻이다. 네덜란드 감뎀의 꼬바끌(G. Kwakkel)교수는 이 말로써 이 주제에 대한 글을 맺는다: “약속의 땅은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랑으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2)고 한다.<sup>7</sup>

## 6. 여호와와 이름의 둘 곳(12:5)?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 공식적인 예배는 규정된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표현은 총 21번 언급된다(12:5, 11, 14; 14:24 등).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구약에서 이름이란 지칭되는 존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의미한다.

이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오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소란 말은 단수(hammāqōm)로 표현되어서 오직 한 곳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전 역사를 통해서 한 장소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한 장소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렘 7:12). 물론 임시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27장에는 세겔도 중요한 예배의

---

7 신득일, 『101가지 구약Q&A1』 (서울: CLC, 2015), 96-97.

처소로 언급되어 있다. 이 장소는 시대를 따라서 여러 군데로 알려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원한 처소를 마련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가 되었다(시 132:13-14).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그곳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sup>8</sup>

## 7.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15:5, 히 4)?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란 말은 뒤에 나오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15:11)란 말과 상충된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항상 있을 것이라는 상반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은 무조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먼제년(안식년)에 채주가 자기에게 빚진 형제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실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아서 더 이상 빚이 쪼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15:5).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순종할 때는 국가로서 이스라엘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차관을 줄지라도 차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지배할지라도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15:6).

그러나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와의 계명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한글번역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마치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원문은 “그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이다. 즉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할 때는 풍요로운 삶에서 제외되어서 가난하게

---

8 신득일, 『구약정경론』, 292-293.

살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약속의 땅에도 거류민이나 고아와 과부 또 장애인과 같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언약을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말에는 그 땅에서 항상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예언도 들어있다.<sup>9</sup> 하나님의 법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상적인 언약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강권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한다(15:7-11).

## 8. 왕의 규제(17:14-20)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삼상 8:7).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직을 허용하셨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것은 백성이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요구한 왕은 이방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삼상 8:20).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방나라의 왕과 같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도록하여 언약을 준수하도록 할 임무를 지닌 자이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규율을 따라야 한다(17:14-20).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15). 이 두 가지 조건은 이스라엘 왕은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본요건이 된다. 만일 이방인이 왕이 된다면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백성을 잘못된

9 J. A. Thompson,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5,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4), 208.

곳을 인도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16-17). 말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한 금지는 전쟁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야웨의 이름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이다(신 20:1; 시 20:7).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한 금지는 이방 여인의 미혹을 받아 배교행위를 하는 것과 이방나라와 외교적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한 경고가 된다. 이 조항은 솔로몬과 아합의 경우에 적용된 것이다(왕상 3:1; 11:1-10; 16:31-33).<sup>10</sup>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많은 재물로 인하여 자족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한 경고가 된다(6:11-12; 8:11-17). 왕의 통치 기반은 율법에 있으며, 그 왕위도 율법준수에 달려있다. 그래서 왕은 율법을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한다(19). 고대근동의 제국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은 인본주의 왕으로서 절대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통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 9. 허용된 이혼(24:1-4)?

이 본문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함으로써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이혼을 위한 규정인지 여성의 재혼에 대한 규정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 본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3절은 조건절이고, 4절은 귀결절이다. 그래서 조건절에서 마치 명령과 같이

10 이 사실 때문에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왕의 규례’가 솔로몬의 통치방식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Gary N. Knoppers, *The Deuteronomist and the Deuteronomic Law of the King: A Reexamination of a Relationship*,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08 no 3 (1996) 331.

11 신득일, 『구약정경론』, 293.

“이혼증서를 써서…내보낼 것이요”라고 번역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 한글번역은 이 부분을 귀결절로 번역한 흠정역(KJV)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then let him write her a bill of divorcement, and give it in her hand, and send her out of his house). 그래서 문장구조 자체가 이 내용이 이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편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혼규정이라고 하기를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 여인은 혼인에 있어서 첫 남편과 재결합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먼저 이 남편은 아내에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sup>12</sup> 그 이유는 그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수치되는 일”에서 ‘수치’(‘erwat)란 문자적으로(성기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인데(창 9:22; 20:26; 레 18:6-19; 20:11 등), 이것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닐 것이다. 이 표현은 그 개념의 범위가 넓어서 ‘바람기’부터 ‘피부병’까지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지만 일단 그것은 단순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간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레 20:10). 그나마 이 표현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아내의 생리불순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를 거절한 내용으로 보는 것인데 남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sup>13</sup>

그래서 그 남편은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낸다.<sup>14</sup> 이혼증서는 부부간의 결별을 의미하며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음행한 자로 오해받아 벌받을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또 미움을 받아서 이혼증서를 받거나 그 남편이 죽을 경우에는 첫

12 이 부분은 문자적 번역은 “그녀가 남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이다.

13 Tigay, Deuteronomy, 221; Daniel I. Bloc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Deuteronomy, ed Terry Muck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2), 558.

14 ‘이혼증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커리투트’는 ‘자르다’를 의미하는 ‘카라트’에서 왔는데 단절을 의미한다. 원래 이 단어는 성경의 이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아내의 옷깃이나 겹옷을 자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알려진 이혼의 의식적 행위이다. Tigay, Deuteronomy, 221-222.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한글번역의 ‘몸을 더럽히다’(huṭṭammā’ā)는 ‘더럽혀졌다, 부정하게 되었다,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는 이 말이 선언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그녀가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것이다.<sup>15</sup> 그 부정은 제의적인 것과 성적인 부도덕과도 관련되는데 이 경우는 후자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여인의 부정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녀가 재혼한 후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것이고, 재혼 자체가 합법적인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다면 그 부정은 첫 남편과의 관계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첫 남편이 이혼한 아내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학대와 착취의 의도를 가진 변덕스런 전 남편에게서 그 여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자료를 받은 전 부인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sup>17</sup> 이혼당한 아내가 첫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땅을 범죄하게”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근친상간에 해당된다(레 18:26-27). 이것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형제의 자매가 되는데 첫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마치 자매와 결혼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뜻이다.<sup>18</sup> 이 규정은 예레미야도 언급했다(렐 3:1).

그래서 이 본문은 이혼을 허락하는 법이 아니라 단지 일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혼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말 2:16).

15 huṭṭammā’ā는 tāmā의 호트파엘 형태로서 구약에는 여기에만 쓰인 특별한 용법이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는 것을 의미하려면 히트파엘을 써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J. G. McConville, Deuteronomy,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IL: Apollos; InterVarsity Press, 2002), 358.

16 Mayes, Deuteronomy, 323; Christopher J. H. Wright, Deuteronomy,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2), 255.

17 McConville, Deuteronomy, 359.

18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9), 255.



예수님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질문한 바리새인에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마 19:7-8). 부부는 한 몸이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창 2:24).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인 배교도 해당될 것이다.

## 10. 저주로 언급된 치질(28:27)

고대사회라고 할지라도 특정 질병의 이름인 치질이 저주로 언급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의아하게 여겨질 것이다. 한글 번역성경에서 치질이라고 한 것은 그 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지만 치질을 치핵, 치열, 치루로 좀 더 세분화하는 현대인에게는 그 의미가 궁금하게 여겨질 것이다.

치질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커티브’(전통적으로 전수받은 기록된 본문)에는 ‘오팔림’(‘ ofalim)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단어는 ‘치질’이라는 의미가 없다. ‘치질’이라는 말은 본문이 아니라 본문 곁의 이문에 있는 ‘커레이’(마소라 학자들이 보기에 전수받은 본문이 옳기로 판단되어 그들이 의미가 통하는 말로 이문에 기록하여 수정해서 읽을 것을 권하는 본문) ‘터호림’(t eḥōrīm)에 대한 번역이다. 이 단어는 아람어 번역인 탈군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t eḥōrīn).

‘오팔림’이란 말은 종기 혹은 종양을 의미한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겪었던 ‘독종’과 같은 말이다(삼상 5:9, 12). 분명히 이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치질과는 다른 병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피부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랍비전승에서는 이 말이 치질(hemorrhoid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회당에서 낭독할 때 천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좀 더 점잖은 용어인 ‘터호림’으로 대치되었다. 랍비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단어를 대치하곤 했다.

칠십인 역은 히브리어 ‘바오팔림’(ba’ ofalim)을 ‘애굽의 종기’와 연결해서 ‘엉덩이에’(in the seat)라고 번역했다. 이것은 칠십인 역 번역자들이 그 표현을 변이 나오는 신체부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커티브’의 본문과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의 표현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부풀어 오른 것으로 치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 질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대 영어번역의 경향은 히브리어 본문인 ‘커티브’에 근거해서 치질이 아니라 ‘종양’(tumors)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다(NIV, NKJV, ESV).

만약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오팔림’은 치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질병은 독종으로 번역되며 신체조직에 손상을 주고 치사율도 높다(삼상 5:10-12). 이 병은 설치류의 습격으로 인한 쥐벼룩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하며 전염성도 강하다. 주요 증상은 내분비선이 부어올라서 고열과 무기력증을 동반한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저주가 새 언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약시대는 복과 저주가 물리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새 언약시대에는 곧바로 영적인 것과 관련된다.<sup>19</sup>

---

19 신득일, 『101가지 구약Q&A1』, 100-101.

성경연구 제10-1호

신명기

/

신명기 본문비평과 번역 김하연 박사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기동연 교수

신명기 해석과 강해 최윤갑 교수

신명기 난제 신득일 명예교수